

# 定慧社

제 13호  
불기 2541년  
봄 호



松廣寺講院  
송광사강원

## 新정혜결사의 마음으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보조스님께서서는 정혜결사문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아무리 현 상황이 부정적인 모습이 많다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제 송광사강원이 새롭게 지어진 정혜사로 자리를 옮긴다.

큰방 이름을 정혜사(定慧社)라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 눈에 비친 한국사회는 전통사상의 단절, 도덕성부재, 극단적 이기주의 등에 의한 가치관 혼돈으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침체가 가중되고 있고, 북한은 유물론적 사고와 고립을 자초한 정책으로 결국은 기아문제로 허덕이고 있는데, 한국불교 역시 이와 다름없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인다.

처음 출가할 때 불교만큼은 하며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못 미치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믿었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경제발전과 함께 풍요로워진 사원경제로,

서양체제와 사상의 도전으로,

사회와 함께 고유의 승가정신마저 흔들리는가?

계·정·혜(戒定慧)의 가르침이 희미해짐과 함께 계율정신의 부재, 무소유 정신의 쇠퇴, 대승사상의 부재등 정법에서 벗어난 현상이 만연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물든 승가의 모습을 본다.

승가는 사회가 어두울 때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따라 간다면 말이 되는가!

승가가 바로 서는 것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임을 알기에, 우리 학인은 감히 이 시점이 新정혜결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강원 방사를 정혜사로 옮기면서, 보조스님의 정혜결사의 정신을 되살리는 초석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생활 수칙을 정한다.

1. 捨出名利 : 삭발일 마다 출가의미를 새롭게 하는 대참회를 실시한다.
2. 諸佛敬讚 : 삼사(예불, 공양, 울력)에 신심(信心)을 다하며, 항상 그 의미를 관(觀)한다.
3. 受持戒律 : 포살에 꼭 참여하며, 시물을 아껴쓰고 청규에 따라 화합한다.
4. 勤修定慧 : 간경을 생활화 하고 행주좌와에 늘 깨어 있도록 한다.
5. 自利利他 : 어른을 공경하며, 탁발을 통해 자비의 회향을 배운다.

이를 실천함이 비록 작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만, 송광사강원 학인 모두는 자신과 사회를 밝힐 등불을 켜는 마음으로 외부로 향하던 마음을 내부로 돌이켜 新정혜결사의 밑거름이 되며, 정혜사(강원)의 참다운 주인이 되고, 보조스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송광사강원을 이룩하고자 오늘도 묵묵히 마음의 불을 켜다.

※ 하안거가 시작되는 5월 21일 오전 7시에 송광사 강원 대중 일동은 정혜사 큰방에서 사중스님들을 모신 가운데 新정혜결사에 들어가는 고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 定慧社

## 제 13호 불기2541년 봄 호

발행처/송광사 강원·發行人/智雲(講主)·편집인/  
도선(입승)·편집장/연각·편집/선문, 정원, 월륜·  
사진 삽화/응진·발행일/2541년(음) 4월 1일·주소/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61) 755-5300,  
5302·인쇄/도서출판 보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62-1 ☎ (062) 232-6702

### 차 례



조계의 물소리	新정혜결사의 마음으로 .....	편집부
경전 한귀절	3/꽃벌 .....	편집부
사진 속의 이야기	4/ .....	편집부
기획연재 11	6/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	지운
화 보	15/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	편집부
지대방 이야기	18/봄 .....	성구
	20/출가에서 수계까지 .....	도빈
	22/아버님 극락왕생 하소서 .....	경선
	24/예불은 왜 드려야 하는가? .....	범경
	26/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다 .....	도산
특 집	28/송광사 정혜사 상량문 .....	범홍
독 후 감	30/“자네 도가 뭔가 아나”를 읽고 .....	무념
특별기고	32/일본불교의 어머니 .....	현장
수강록 정리	36/대승기신론의 수행신심분에 나타난 五門의 바른 이해 .....	종지
원전번역	40/勸修定慧結社文 .....	보안
	43/증시랑에게 보내는 답장(4) .....	홍근
탁발 고불문	46/북한동포를 위한 탁발 .....	편집부
강원 기금	47/강원 발전기금 접립 상황 .....	편집부
	48/편집후기·후원안내 .....	편집부

## 꿀 벌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 계실 때, 장자의 아들인 선생(善生)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먼저 기술을 익혀라. 그래야만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재물을 얻어 풍요하거든 잘 지켜 보호하라.

재물을 쓰되 사치하지 말고 마땅히 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라.

남을 속이거나 저돌적인 사람은 아무리 애걸해도 빌려주지 말라.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함을 눈 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며,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

밭 갈고 장사하며 목장 만들어 짐승 먹이고, 마땅히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방사(房舍)를 지어라.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은 바다가 강물을 받아들이듯 재물이 줄지 않고 늘어나리라.”

장아함경 제11:선생경<1-72중>





지난 밤 비에  
문수전 앞  
매화꽃은 얼마나 남았는가!

봄이 오기전  
봄은 이미 가버리고,

바람에  
매화가지만  
흔들리네.

사진·글 : 편집부

#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 (6) 信心과 發菩提心

지운/강주

### - 目 次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1) 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 (3) 教法은 깨달게하는 因이다.
    - (4) 教法은 自心을 印可하는 道具이다.
    - (5) 捨教入禪
  - ※ (6) 信心과 發菩提心
    - 2) '공부'라는 말의 意味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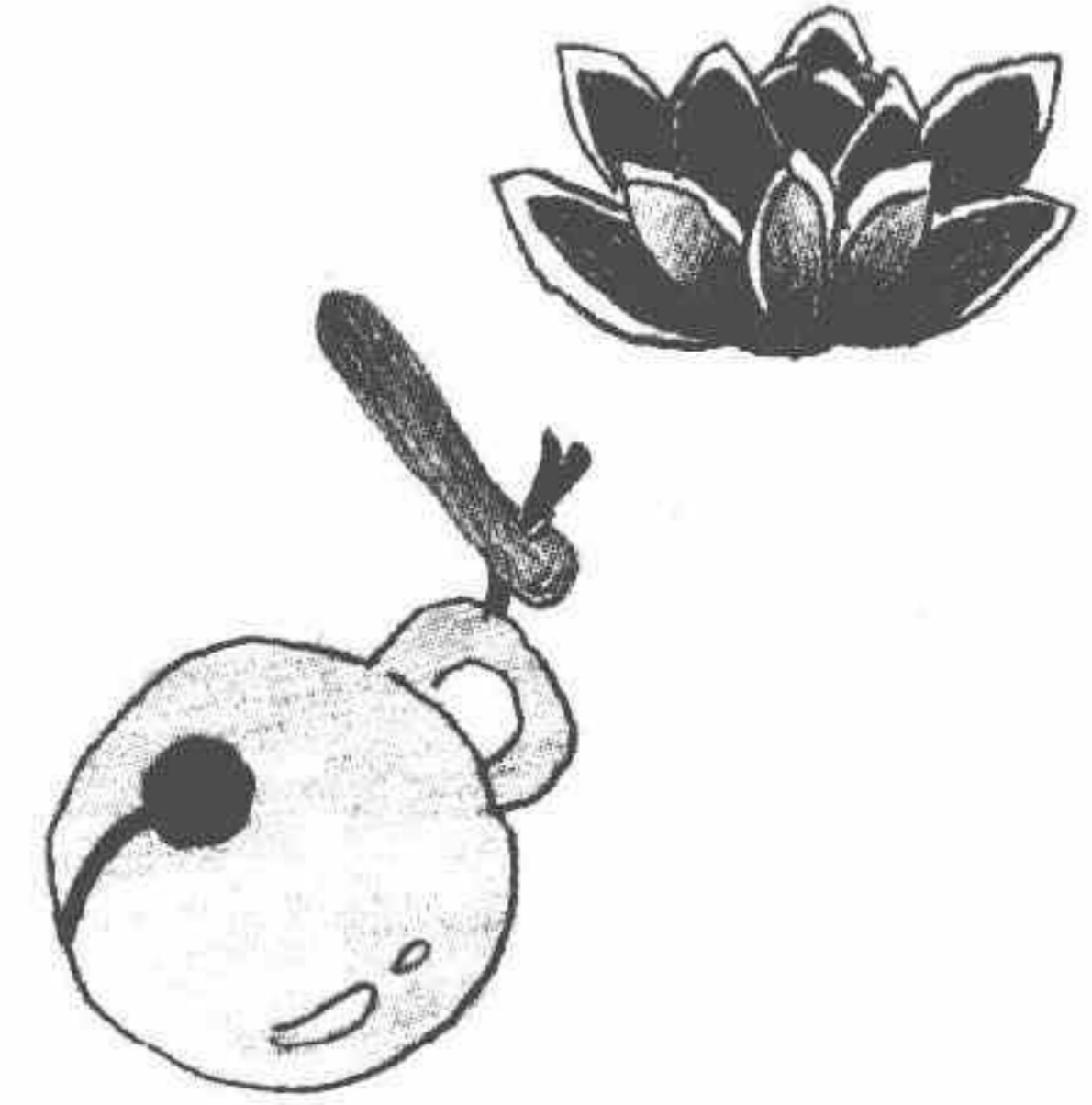
강원에서 經.律.論 三藏이나 祖師語錄을 공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수행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수행의 원동력이 왜 經.律.論 三藏과 어록을 공부하는데서 비롯될까? 教法이 發菩提心の 동기가 되기 때문인데, 여기

에서 발보리심이란, 즉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발보리심이 되지 않았을 경우, 수행에 힘쓰다해도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이는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信心이 동반되지 않은 발보리심은 발보리심이라고 할 수 없다.

信心은 普照의 《真心直說》의 〈真心正信〉에 다음과 같이 설한다.



“華嚴(賢首品)云 信爲道源 功德母 長養一切諸善根 又唯識云 信如水清淨珠 能清濁水故 是知 萬善發生 信爲前導的 佛經首立 如是我聞 生信之所謂也”



여기에서 경전의 첫머리에 “如是我聞”을 언급한 것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함인데 이처럼 모든 經.律.論 三藏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한 上講禮<sup>1)</sup>의식은 그대로 믿음을 나타내는 儀式이자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는데 이런 의식은 강원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대학체제에서의 학문은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찾아볼수 없는 것이다. 즉 대학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지식의 습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진리를 논하고 깨침의 경지를 토론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정보에 머물뿐이다. 그것은 진리와 깨침을 논증하는 방법이 언

어문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문자를 떠나면 무력해 지는 것이 대학교육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진리와 깨침이 언어문자에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진리의 현현은 자신의 禪定心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깨침이란 마음 밖에서는 이룰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문자로써는 가늠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나 깨침은 믿음이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법을 표현한

1) 上講禮            상강례

- 心頂禮 盡十方三世 一切諸佛            일심으로十方三世 부처님께 정례합니다.
- 心頂禮 盡十方三世 一切尊法            일심으로十方三世 모든 존법 정례합니다.
- 心頂禮 盡十方三世 一切賢聖僧            일심으로十方三世 일체 현성 정례합니다.
- 我弟子等 講論三藏 惟願三寶 爲作證明    저희 제자들 경을론 삼장 강론하는데 바라옵건대 삼보께서는 증명하소서.

南無釋迦牟尼佛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南無釋迦牟尼佛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南無本師釋迦牟尼佛        본사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無上甚深微妙法            위 없는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여  
 百千萬劫難遭遇            백천 만겁 오랜 세월 만나기 어려워라.  
 我今聞見得受持            이제 저희가 보고 듣고 수지하오니  
 願解如來眞實意            원컨대 여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언어문자는 단지 믿음을 돈발시키는 도구일 뿐이며 문자로 이루어진 경전이 如是我聞으로 시작되는 것도 신심을 촉발시키는 정보창구가 될 뿐이다. 율과 논서 조사어록도 마찬가지이다.

신심은 볼 수는 없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참(眞)이라고 미리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믿음은 언어문자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그 언어문자에 의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문자를 통하나 이를 벗어나서 언어문자 以前으로 돌아가야만이 진실이 보이고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覺이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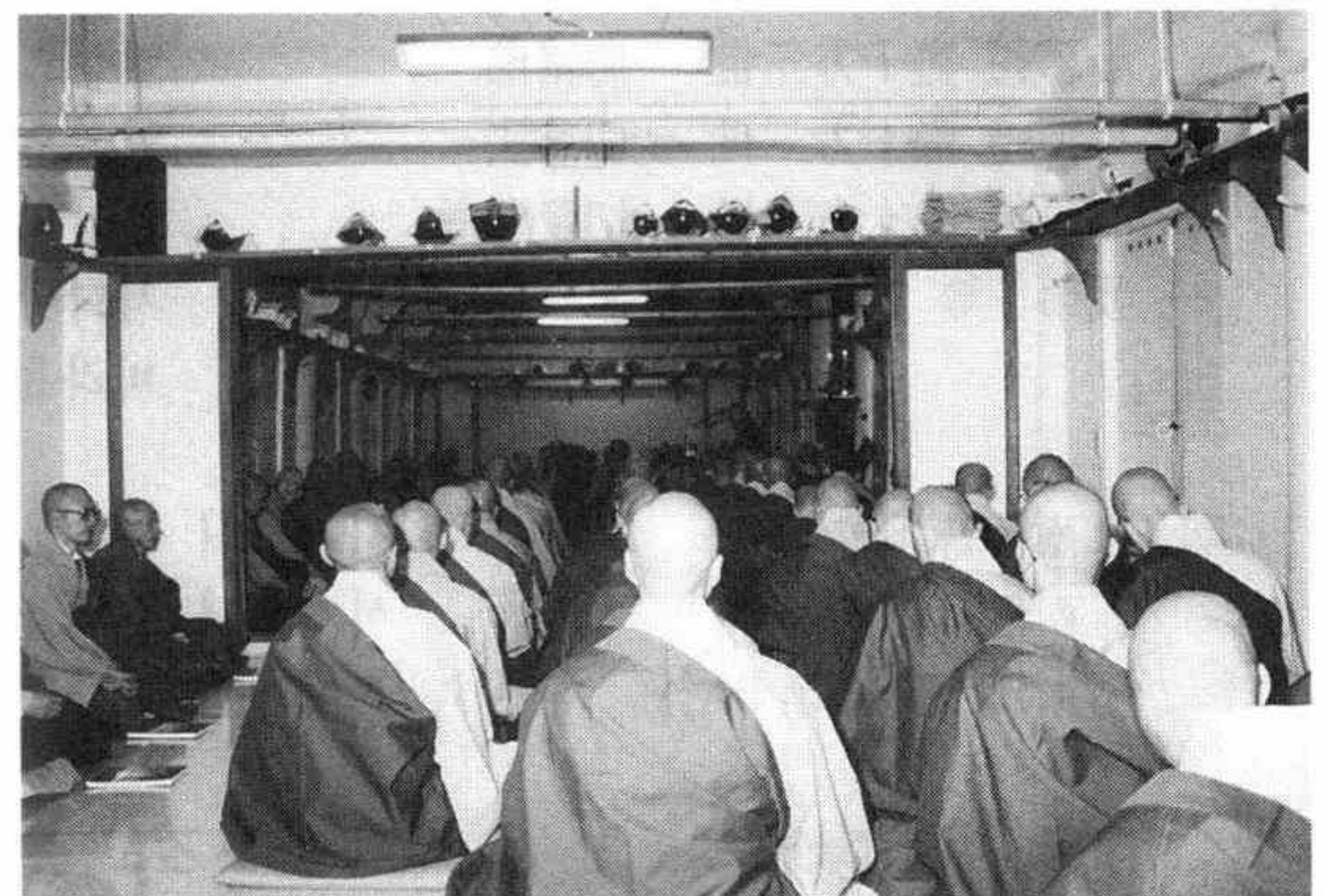
三藏과 語錄의 교법에 의하여 생기는 신심이 어떻게 발보리심을 촉발하게 하는가? 여기에서 신심이란 因果를 믿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인과란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과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고통이고 둘째는 고통에서의 벗어나남이다(수행).

그럼 먼저 첫 번째 인과의 성격이 고통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자. 여기에서 믿음이란 善惡의 因果를 믿는 것이다. 善因을 심으면 善果가 따르고 惡因을 심으면 惡果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을 싫어하고

좋은 과보를 원하게 된다. 따라서 선업을 일으키고 生死苦를 싫어하게 됨으로 無上菩提를 구하고자 하는 發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乘起信論》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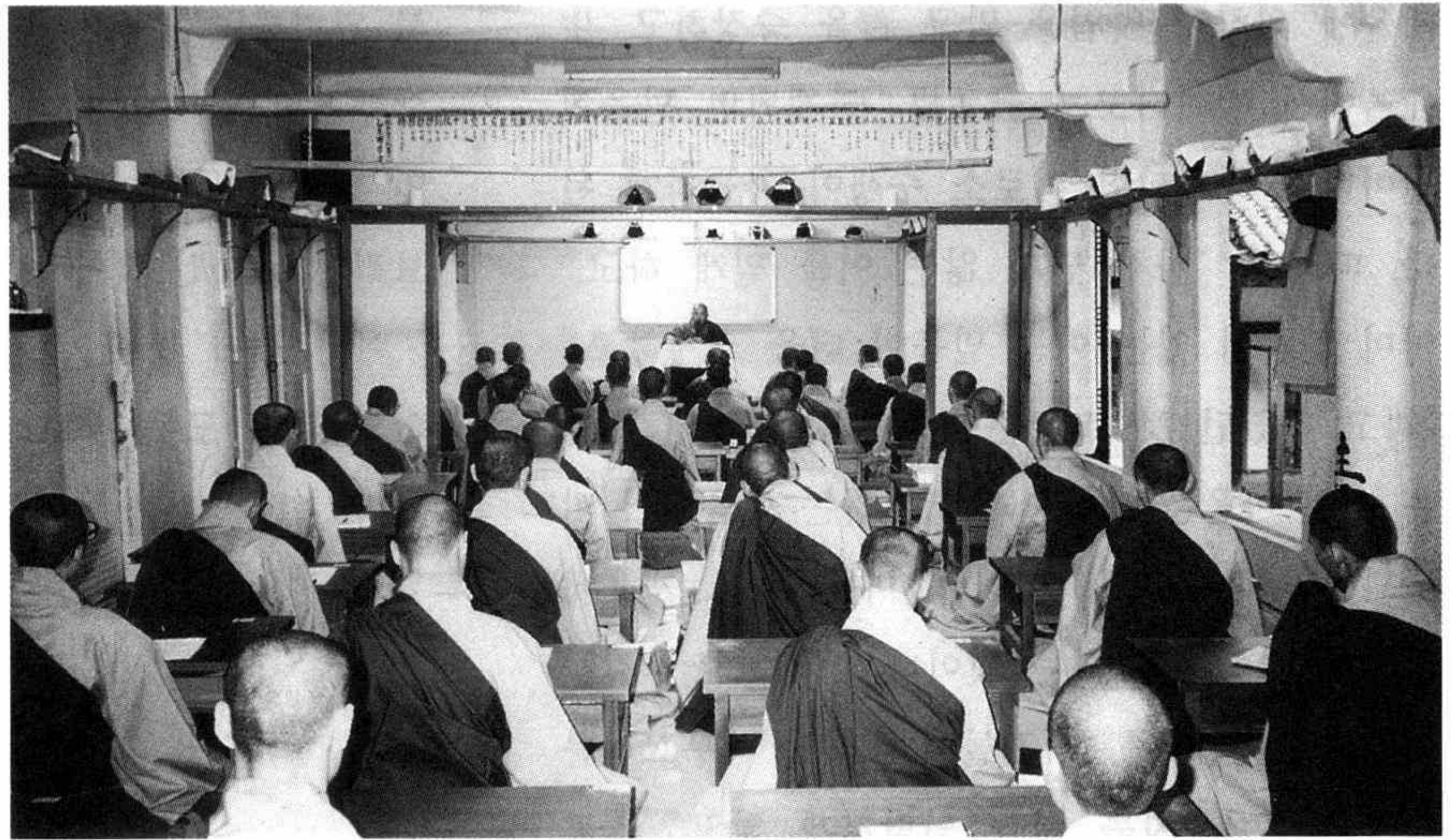
“信成就發心者 依何等人 修何等行 得信成就 堪能發心 所謂依不定聚衆生 有熏習善根力故 信業果報 能起十善 厭生死苦 欲求無上菩提 得值諸佛 親承供養 修行信心 經一萬劫 信心成就故 諸佛菩薩 教令發心”<sup>2)</sup>

發心이 되어야만 佛果를 얻기 위한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즉, 수행은 곧 발심의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발심은 믿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믿음이 결여되면 진리의 깨달음에 회의를 일으키게 되어 無上의 깨달음을 이루려는 발심은 일어나지 않게된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해 발심이 생기는 것이며 이 믿음은 善惡의 因果에 이치를 잘 아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옆 사람이 이유없이 따귀를 때렸다고하



2) 韓國佛教全 書 第一冊 1990년 8월 p.1-775 中

자 당연히 화가 치밀 것이고 더 나아가 큰 싸움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여기서 따귀를 때림은 인이고 화가 치밀고 싸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쫄다. 이것이 싸움으로까지 전개가 된다면 맞았던 사람은 물론이고 때린 사람에게



게도 고통이 동반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  
의 고통이다. 여기에서 삶 자체가 인과 덩어리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속히 이 굴레에서 벗  
어나서 無上의 깨달음을 얻고자하는 마음을 내  
는 것이 菩提心을 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보리심의 동기는 인과에 따른 고통  
으로 인함을 알 수 있는데 《菩薩地持經》卷一을  
살펴보면 四種發心 중에 (1)세상 사람이 비록  
佛法을 듣지 못했으나 正法이 滅하려는 모습을  
보고 衆生이 많은 惡業을 지어 마땅히 大苦를  
만날 것을 염려하여 菩薩道를 닦아 正法을 護持  
하며 衆生의 無量苦를 滅하기 위해 이 護法으로  
써 增上緣을 삼아 佛智를 구하기를 원하므로 發  
菩提心한다 하였고,

또, (2)세상 사람이 비록 法이 滅하려는 모습  
을 보지 못했으나 惡世衆生이 煩惱에 障蔽되어  
生死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고 無上菩提를 구

하려는 意志를 發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  
한 衆生에게 이 心願을 發하게하여 增上緣을 삼  
아 佛智를 구하기를 원하므로 發菩提心이 된다고  
한 것이다.

이 경전의 내용을 보더라도 인과의 고통이 발  
심의 계기가 되듯이 믿음이란 인과를 믿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믿음이란 인과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전이 믿음을 생기게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믿음을 발하게 하는 가르침이 무엇일  
까? 삼장이나 어록에서는 계율을 지니고 지켜나  
갈 때 비로소 인과의 믿음이 확고하게 되고 증  
장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戒定慧 三學은 三  
藏이나 祖師語錄에서 설하는 수행의 핵이 되고  
있다.

또, 〈四分律卷一〉에서는 계율을 제정하여 지  
키게 함에는 열가지 뜻이 있음을 설하고 있다.<sup>3)</sup>

3)大正藏 第二十二卷 p. 570下.

계율에 의하여 악업을 막고 선을 증장하고, 生死苦에서 벗어나고자 發菩提心하게 되면 믿음이 일어나고 증장되어 비로소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믿지 않는 이를 믿게 하고,<sup>4)</sup> 이미 믿음이 있는 이는 믿음이 더욱 굳게 하고,<sup>5)</sup> “라고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精進의 加速은 거친 마음을 조복함과 慙愧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마음 역시 계율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들이기 어려운 이를 잘 길들이게 하고,<sup>6)</sup> 부끄러운 줄 알고 뉘우치는 이를 안락하게 하고,<sup>7)</sup>”라고 한 것이다. 또, 戒에 의한 정진의 가속은 有漏의 번뇌를 소멸시키고 覺을 성취케하는 수행 그 자체가 되므로 “현재의 유루를 끊게 하고,<sup>8)</sup> 미래의 유루를 끊게 하고,<sup>9)</sup>”라고 하신 것이다.

有漏는 번뇌이다. 수행이란 바로 이 유루를 제거하는 데에 있다. 제거하는 방법은 수행으로 여기에서 계율을 지킴으로써 유루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계율 그대로가 수행이 되며 궁극에는 大覺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戒에 의하여 因果의 잘못을 막고 發菩提心이 촉발되게 하는데 두 번째 인과를 믿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인과란 그대로 수행체계

를 의미하며 고통의 인과가 아닌 고통을 여의는 수행도의 인과를 말하고 있다. 즉, 수행의 출발인 믿음이 因行이 되고 이 인행의 결과가 무상보리인 佛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 고통의 인과와 둘째, 수행도의 인과는 모두 발보리심의 촉발시키는 바탕이 된다.

## 3

그렇다면 이 인과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또, 교법을 통하여 고통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 받을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經律論三藏과 祖師語錄이 신심을 생기게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보리심의 동기를 《菩薩地持經》卷一에서는 (3)見聞이 增上緣<sup>10)</sup>이 된다고 하였다. 즉, 世人이 모든 佛菩薩의 不可思議한 神通變化之事를 見聞하고는 佛菩薩은 功行이 具足하여 變化가 無窮함을 알게될 때, 이 見聞을 增上緣으로 삼아서 佛智를 구하기를 원하므로

4) “四. 令未信者信”

5) “五. 已信者令增長”

6) “六. 難調者令調順”

7) “七. 慙愧者得安樂”

8) “八. 斷現在有漏”

9) “九. 斷未來有漏”

10) 增上이란 增進의 뜻이다.



菩提心を 發하게 되는 것이다. 또 (4)聞法이 增上緣이 된다고 하였는데 世人이 비록 諸佛菩薩의 神通變化를 見聞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佛法을 듣고 菩提 및 大乘法을 찬탄하여 歡喜信樂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 聞法을 增上緣으로 삼기 때문에 佛智를 구하기를 원하게 되어 菩提心を 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발심의 촉발이 신심이라고 한다면 발심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불보살의 불가사의한 신통변화가 발보리심의 동기라면 그것은 불보살이 되고 자하는 마음이 된다. 여기에서 법을 들음으로 발보리심이 촉발된다고 할 때, 법을 들음에도 여러종류가 있게 된다. 불보살에게 직접 듣는 경우가 있고 조실스님이나 그 외 스님의 법문으로 혹은 직접 경전이나 어록을 독송하므로써 스

스로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華嚴經》에서 처럼 《華嚴經》이 설하고 부처와 菩薩이 설하고, 天, 龍, 阿修羅가 설하고 地神, 水神, 火神, 風神, 山神, 林神, 樹神, 道場神이 설할 뿐만아니라 無情인 구름이 설하고, 바람, 티끌, 돌맹이, 국토가 說하는 無情說法을 듣는 것도 모두 발보리심의 동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발보리심은 신심을 바탕으로 하기에 이 신심과 발보리심은 不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심과 발보리심이 교법을 통하여 촉발된다면 이 교법 또한 결과를 내는 인의 힘을 가진 길잡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華嚴經》賢首品 偈頌에 의하면 “믿음은 능히 歡喜로 佛法에 들게하며, 智功德을 증장하며 반드시 如來地에 이르게 한다.”<sup>11)</sup>라고 하여 信心이 佛果로

11) 〈賢首品〉第十二之一 “信能歡喜入佛法 信能增長智功德 信能必到如來地” 高麗大藏經木版本 九幅뒤면—十幅앞면

引導함을 설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에서의 교법 공부은 바로 신심을 내고 발보리심 하기 위한 장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신심과 발보리심의 역할이 정각을 이루기까지 작용되어질 때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바로 수행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법의 공부는 바로 수행이고 강원에서의 그 구체적이고 주된 수행은 看經이 된다. 여기에 捨教入禪이 있다. 그러나, 신심이 수행되고 발보리심이 촉발되지 않는다면 捨教入禪은 不可能하게 된다.

따라서, 작금의 강원통폐합 움직임은 재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심과 발보리심의 촉발이 수행의 길을 열어주고 깨침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이를 도외시하고 언어문자로 학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대학체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승가대학령에 의해 강원을 통폐합하거나 대학체제의 승가대학으로 만든다면 곧 언어문자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어 더 이상 신심과 발보리심을 촉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上求菩提 下化衆生の 이념은 빛을 잃게 되어 학자는 배출되지만 진정한 신심있는 수행자는 사라져 갈 것이다.

학자는 믿음이나 발보리심이 없어도 학문할 수 있지만 수행자는 知識이 없어도 신심과 발심

으로서 성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불교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 가운데 신심과 발심이 촉발된다면 지식을 지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이보다 더 빠른 수행을 이룰 수 있음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佛法을 사상적으로 연구하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 충분조건이 되지않는다. 그 연구나 그 성과에 윤리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게되며 학문과 연구자(학생 또는 학자)의 사생활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난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식을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인과를 믿는다는 것은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 체험의 세계로 이끄는 힘이 있다. 따라서 계율이 바로 서게되어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며 신심이 더욱 증장되게 된다. 그 이유는 계율은 善因善果 惡因惡果의 眞理에 의거하기 때문인데 《佛遺教經》에서 戒은 禪定과 智慧를 낳고, 解脫을 이루는 근본이 된다.<sup>12)</sup>고 설하였듯이 계율에 의한 믿음에서 禪定이 생기고 선정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게 됨으로 결국 믿음은 無上正遍知인 正覺을 이루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믿음 없이 불교를 연구한 학문적 성과라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고, 邪見과 오류를

12)《佛遺教經》此則略說持戒之相.戒是正順解脫之本.故名波羅提木叉.因依此戒,得生諸禪定,及滅苦智慧.”

여기서 戒를 가지는 모양을 대략 말하니 戒는 해탈을 바르게 따르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바라제목차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戒를 의지하면 모든 禪定을 얻어 苦를 없애고 지혜를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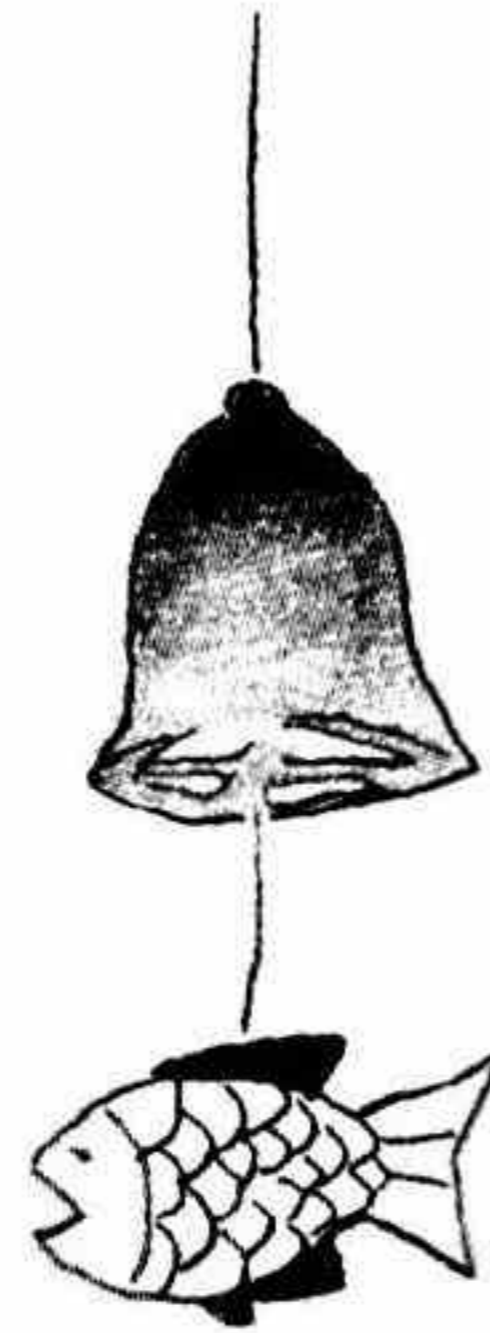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비윤리적이 됨으로 깨달음과는 무관할 수 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학문을 한다면 그 논리적 주장이 正見으로 바를 수 있지만 언어문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禪定과 智慧는 형성되지 않아 깨달음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학문하는 대학체제로는 믿음을 가지거나 증장시키는 적합한 환경을 이룰 수 없다. 因果를 근거하여 이루어진 계율이 바탕이 된 승가체제가 아니고서는 믿음은 생기지도 않고 증장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언어문자의 차원을 벗어난 깨달음은 이룰 수 없다. 여기에 강원체제의 우월성이 있다. 강원은 승가체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바탕이 되며 또 佛法을 知識이나 학문차원을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수행도량인 것이다.

4

현재 강원통폐합의 불합리성은 세속의 대학제도를 도입하여 만든 승가대학령에 의해 합법적이란 빌미로 통폐합하려는데 있다. 이것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은 갓출가한 학인스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촉발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승가체제라야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학체제를 가지고 만든 승가대학령은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분명 문제가 있다. 통폐합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인 정원인데 학인 정원의 하한선과 상한선이라는 것은 근본에서 벗어난 지말적인 것이며 그것으로 강원을 통폐합하거나 운영한다는 것은 인재양성이라 함은 허울 뿐이고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강원이 될 소지가 크다. 제도보다는 우선 신심과 발심이 이루어지도록 승가체제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늘 승가체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승가체제의 근본은 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있다. 비록 禪院에 서너명의 스님들이 정진한다고 해서 견성하지 말라는 법이 없듯이 강원에 서너명이 있다하더라도 인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선원이나 강원은 승가체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僧伽라는 의미는 화합승이란 뜻으로 四人 이상이라면 승가가 된다.

승가의 화합은 계율로써 때문에 강원의 학인 수는 四人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대학체제에는 四人 이상은 대학이 될 수 없다. 정부에서도 50명 이상이 되어야 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가체제는 세속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출가수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체제는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승가에는 통용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체제를 승가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더라도 계율이 빠져 있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은 신심과 발심을 촉발하는 장으로써 수행도량이고 교법공부가 그대로 捨教入禪하는 수행이 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신심은 발보리심의 菩提와 상응관계에 있다. 모두 마음이고 信心의 내용이 因果라면 보리의 내용도 緣起 즉, 인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심은 발보리심을 촉발하고 이 촉발에 의하여 인과의 수행도에 나아가서 佛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상적인 연구를 위한 학문이라면 이 학문은 언어문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신심이나 발심의 마음과 상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華嚴經》須彌頂上偈讚品第十四에서는 “言語로 諸法을 설하여 實相을 나타낼 수 없다”<sup>13)</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문에서 수행으로 전환하려면 발심이 촉발되어야 되고 발심의 촉발은 신심이 있어야 하며, 신심은 인과를 믿어 인과를 잘 알고 증장시키기 위해서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계율에 바탕을 둔 승가체제가 아니면 중생의 구원과 깨달음의 성취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언어문자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학체제나 이것을 근거한 통폐합은 강원의 장래를 어둡게 하며 조계종의 수행풍토가 학문일변도의 풍토로 바뀌게 될 우려도 낳게 한다.

강원을 대학으로 재편하여 그 체제를 바꾼다면 佛法의 쇠퇴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강원은 그대로 두고 신심과 발심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로 생각된다. 물론 불교를 사상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필요하므로 대학이 있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학문불교를 수행의 지체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법은 바로 신심을 일으키고 발보리심하게 하는 원인임을 알아보았으며, 아울러 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현 승가대학령이나 강원통폐합에는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본다.

〈다음호에 계속〉

13) “言語說諸法 不能顯實相” 高麗大藏經 木版本 七幅 앞面 偈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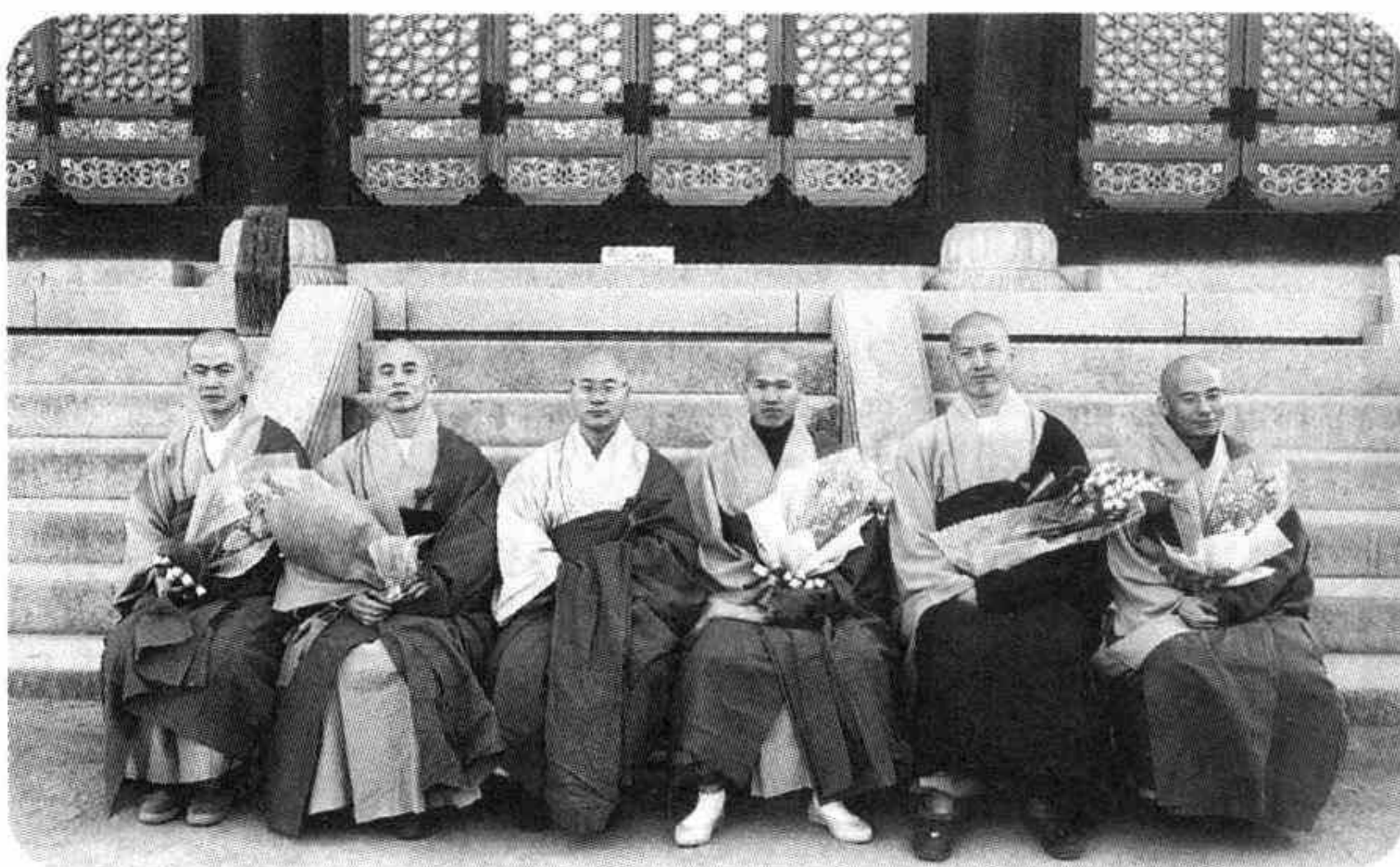
# 학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 탁발 (2월21일)

동안거 탁발이 광주 굽남로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강원 전 대중이 참여한 이번 탁발에서는 탁발의 의미를 정리한 유인물을 특별 제작하여 돌렸는데,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탁발의 의미를 전해 주고 자하는 의도였습니다. 송광사 광주포교당인 원각사를 중심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 모금된 60여 만 원의 보시금은 송광사 내에 결성되어있는 소년소녀가장돕기의 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제7회 강원졸업식 (2월22일)

4년간 송광사강원에서 정진했던 스님들의 졸업식이 사중의 어른스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청당 큰방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스님(보적,연해,노휴,광인,정묵스님)들은 계속해서 각각 제방에서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 연등울력 (3월27일-31일)

복 부처님 오신 날 쓰여진 연등을 만드는 울력이 문수전에서 닷새동안 있었습니다. 강원과 사중의 사정상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된 이번 울력은 강원 전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중고등부학생회와 원각사청년회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 사중환경미화율력 (3월28일- 4월14일)

대교반스님을 주축으로 강원도 스님들이 사중에 꽃나무 및 허단 가꾸기 율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중 곳곳에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며 허단을 꾸미는데 정성을 다하여 애쓰는 결과, 보기 좋게 꾸며졌는데, 지난 식목일에는 송광사, 범교포교당, 광양보광사중고등부 학생회 법우들이 손수 구입한 꽃나무를 송광사경내에 심는 율력을 해주었습니다.



### 소방훈련 (4월10일)

사시공양후 오후 1시부터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사내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화재 대처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장전에 화재가 난 것으로 가상하여 화재진압, 부상자 응급처치 및 운반, 귀중품 운반, 소화기 사용법 등을 실습했습니다. 이번 행사도 순천소방서의 지도하에 실시되었습니다.



### 오도암 축구율력 (4월11일)

개강이후 계속해서 치문반 스님들이 새로 방부를 들이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오도암 축구율력은 상견례행사를 견해 치러졌습니다. 현재 강원대 중은 60여명으로, 송광사 강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대중이 함께한 만큼 축구율력도 활기찼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화합하는 강원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 밭 율력 (4월12일)

지난 겨울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중내 농작물 밭의 평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정지작업 중 드러난 자갈등을 골라내는 율력을 전 사중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번 평탄한 작업이 끝나면 보다 더 혼육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 치문반 습의 (4월14일)

새로 방부등인 치문반 스님들에 대한 청규습의가 대교반스님들까지 모두 참석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번 습의를 시작으로 방우습의등 제반 대중 생활에 대한 습의가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됩니다.



### 봄산철 번역시험 (4월27일)

봄산철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정진한 성과를 점검하는 번역시험이 사자루에서 있었습니다. 사교반까지 한사갓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여 1시간에 걸쳐 시험을 치렀으며, 대교반스님들은 인례로 참석하였습니다.



### 우화각밀 계곡 청소 (4월30일)

보조국사의 재일을 맞아 실시되는 송광사 삼월복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학인스님들도 사내 환경미화 노력을 실시했습니다. 복사 안내문 발송 작업에서부터 우화각 밀 계곡에 쌓였던 퇴적물을 깔끔히 씻어내는 노력까지, 학인스님들의 손길이 미쳤는데, 삼월복사 기간에도 각각 소임을 맡아 수고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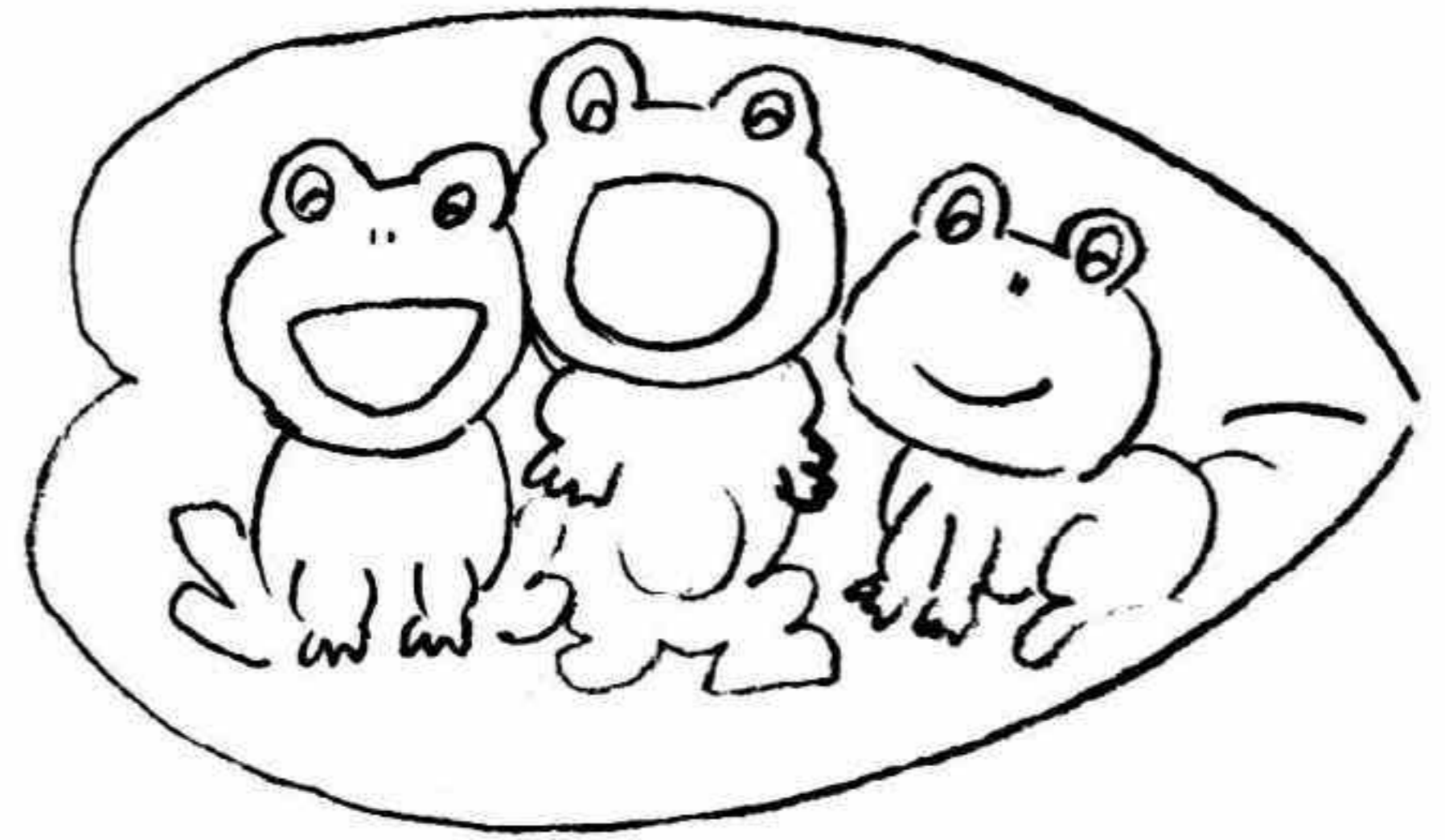


### 정혜사 입주식 (5월1일)

송광사 삼월복사가 시작되려 함께 강원으로 새로 지어진 정혜사가 완공되어 입주식이 있었습니다. 사중의 어른 스님들을 비롯한 행사에 참여하시는 어른스님들과 삼월복사에 참여한 많은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입주식에서 주지스님께서 앞으로 강원에 대한 바램을 밝히셨습니다. 삼월복사가 끝나면 강원대중이 해청당에서 정혜사로 보급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 봄



성구/사집

길고도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동안거가 끝난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사월이 되어도 찾아 오지 않을것만 같던 봄이 봄비와 함께 소리없이 우리들 곁으로 찾아 왔다. 봄이오니 오매불망 꿈꾸던 사집반이 되었고, 여기에 하나, 둘 방부 드리는 치문반 스님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어느새 방부들인 치문반 스님들이 열 두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기하는 스님이 늘어만 가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다들 큰방 분위기에 익숙하

무엇보다 많은 대중들이 함께 생활하다보니 나의 사소한 잘못 하나 하나까지 윗반 스님에게 지적받게 되고 같은 반 도반 스님들 사이에서도 항상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러는 사이 사이에 어른스님께서 말씀하시던 “절집공부는 대중의 힘으로 한다”는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지 않아서 조금은 힘들어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랬고 다른

모든 스님들도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잘 생활할 수 있을거라 믿는다.

돌이켜보면 치문반 생활은 평생 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는다.

행자교육을 마치고 수계하자마자 아무런 준비없이 시작한 강원 생활은 낯설고 걱정도 되었지만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했던 내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사형들은 아무도 가지않았던 강원을 굳이 가겠다고 은사스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래 평생 할 중노릇 똑바

로 하려면 강원에서 사 년 정도는 생활해 보는 것도 좋지.” 하시며 열심히 살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렇게 시작한 강원생활은 생각같이 쉽지 않았었다.

무엇보다 많은 대중들이 함께 생활하다보니 나의 사소한 잘못 하나하나까지 윗반 스님에게 지적받게 되고 같은반 도반 스님들 사이에서도 항상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이사이에 어른스님께서 말씀하시던 “절집공부는 대중의 힘으로 한다”는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무엇보다 송광사강원은 공부하는 양이 많아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아침이 결코 반갑지 않았다. 줄리는 눈을 비비며 윗반 스님들보다 먼저 예불준비를 하다보면 한 번 실컷 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집반이 된 요즘도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제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면 치문반 때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건 아니지만 치문반 때에 느꼈던 생각



과는 아무래도 다른 느낌이다. 지난해에는 말은 소임 하느라 항상 바빴고, 소임시간 이외에는 수업준비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였다. 이제는 시간적 여유도 생겼고 마음의 여유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여유 속에서 지금이 ‘초발심시변성정각(初發心時便成正覺)’이라는 글귀가 나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인간은 무엇인가 익숙해지는 순간 나태해지기 쉽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야할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뜻한바를 이루지 못하고 후회한다고 한다.

세속의 모든 인연 끊고 출가할 때 지냈던 금강석과도 같은 굳은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자! 지나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더욱 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후회없이 살아야겠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 出家에서 受戒까지



도빈/치문

출가는 내가 결정한 것 중에서 가장 현명한 것이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자신의 인생경로를 결정하려면 정말이지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서서야 내자신의 일에 주체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서 부터 나의 갈 길을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 1년을 보내는 동안 세속의 일들의 많은 부분이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내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는 생각만 더욱 커

갔다. 그러던중 마음을 정리하고 지리산 칠불암에서 한 스님께 출가할 것을 말씀드렸더니 해인사로 출가할 것을 권하셨다. 해인사로 출가하여 유발행자생활을 6일간 하고 삭발을 하루 남겨둔 그날, 속가의 형님에게 불들려 다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하지만 복학하여 공부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산사로 향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오로지 출가에 대한 생각 뿐이었다. 기회를 보고 있던 차에 결심을 굳히고 주변을 정리하고서는 드디어 송광사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막

상 도량에 도착해 보니 아는 스님도 없고 어색해서 사중을 배회하고 있다가 서점에 들렀고, 거기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되어, 안내를 받아 유발행자생활이 시작되었다. 일주일간 대기기간이 끝나고 꿈에 그리던 삭발을 하고 행자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후원에서 간상 소임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행자생활로 접어들게 되었다. 관세음보살을 숭하면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두달을 보내고 동안거가 시작되면서 공양주로 소임이 바뀌었고, 소임의

막중함을 한층 더 인식하게 되면서 스님들 시봉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 매 끼니마다 공양을 준비하였다.

한달반의 공양주 소임을 마치고 나서는 시자소임을 보게 되었다.

원주스님 시자로서의 나의 역할은 스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의 일처리, 손님들 안내와 방사배정, 그리고 스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는 것으로, 도량 구석구석에까지 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보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동안거 기간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초발심자경문을 외우는 과정이었다. 눈만 뜨면 시작해서 공양간이 떠나가도록 반복에 반복을 계속하면서 한 줄 한 줄 외워질 때마다 너무나 즐거웠었다. 이제 행자생활을 막 마친 입장에서, 후배행자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출가를 결심했으면 육체적 고통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쉽게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더 할 수록 성숙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

다. 본사에서 일주일간의 습의교육을 마치고 직지사에서 행자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독송시간이었다. 무릎을 꿇고 장시간 있다보니 발목이 너무나 아팠던 것이다. 좋았던 점은 오후불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인사로 출가할 것을 권하셨다. 해인사로 출가하여 유발행자생활을 6일간 하고 삭발을 하루 남겨둔 그날, 속가의 형님에게 붙들려 다시 발길을 돌려야만했었다. 하지만 복학하여 공부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산사로 향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오로지 출가에 대한 생각 뿐이었다.

앞으로 여건이 갖추어지면 오후 불식을 실천 할 생각이다. 하지만 행자교육원의 행자교육을 마치면서 23일간의 행자교육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평생동안 스님으로 살아가는데 그 교육이 3개월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출가의 자격중에 학력이 고졸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출가하려 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가르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수계증서를 받으면서 나는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리라 다짐하였다.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초발심의 마음을 굳게 되새겨서 결코 물러나지 않고 정진할 것이다.



# 아버님

## 극락왕생 하소서



경선/사집

사람들은 말한다 봄이 왔다고.  
그러나 숲길을 홀로 산책하며  
나무와 식물들이 약동하는 것을  
보아도,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  
이 허전한 것일까?

몇 년전 미국 워싱턴에 있는  
경원사에서 한국불교 포교에 도  
움이 되고자하는 원력으로 사형  
인 장안스님과 함께 운영을 맡  
았었다. 운영이 어려워 내놓았다  
는 이 사찰을 사형의 부탁을 몇  
번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  
정을 찾았고해서 사형에게는 미  
안했지만 훌쩍 떠나와 버렸다.  
평소 부처님 경전공부를 하고싶

었기 때문에 강원에 들어갈 마  
음을 먹고 귀국했던 것이다.

귀국한 첫해에는 범주사강원  
에서 치문을 보았다. 그러나 치  
문을 마치고 웬지 총림인 송광  
사강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  
각이 들어 사형이 있는 옥과의  
성륜사에서 편입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 속가의 아버님이 돌  
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다.

부고를 받고 보니 슬픔이 앞  
서기보다는 지난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어렸을 적 아버님은 나무해서  
팔고 품팔이 하여 우리 여섯 남  
매를 어렵게 키우셨었다.

그렇게 어렵던 시절도 지나고,  
어느덧 20대에 들어섰을 무렵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몰려와 밤잠을 설  
치는 날이 계속되었었다.

죽으면 이 몸은 영원히 세상  
에서 사라지는데, 세상은 계속  
돌고돈다고 생각하니 허무와 두  
려움이 엄습해 왔었다. 어른들께  
여쭙보아도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고, 마음만 답답해져 아버지님  
께 한 삼년 집에 오지 않고 돈  
벌어 오겠다고 하며 선지식을  
찾아 나셨었다. 그러나, 정식으  
로 출가하여 수행자의 한사람이





아버님이 세상을 뜨시기 전 세달 전에 고향을 찾았었다. 10여년 만에 찾은 고향에는 더욱 늙으신 부모님이 계셨고, 젊은 사람도 몇몇 죽었다하고, 사람 떠난 집들은 폐허가 되어서 잡초만 무성하니, 더욱 제행이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었다.

되기는 했지만, 공부가 그리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세상을 뜨시기 전 석달 전에 고향을 찾았었다. 10여년 만에 찾은 고향에는 더욱 늙으신 부모님이 계셨고, 젊은 사람도 몇몇 죽었다하고, 사람 떠난 집들은 폐허가 되어서 잡초만 무성하니, 더욱 제행이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었다.

사실 아버님께서서는 평소 해소 천식으로 고생하셨는데 더 불편해 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단지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드릴까 해서 출가후 10여년만에 염주와 고승열전(카세트테이프) 등을 사 가지고 속가에 다니러 갔던 것이었다. 그런데 무상이라는 놈

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가실 준비를 하시며 염불공덕이나 많이 쌓으시라' 일렀었다. 부처님께서도 '임종시 정신을 차려 나무아미타불 열 번만 불러도 극락세계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평소하지 않은 염불이 임종을 당해 쉽게 나왔겠는가!

그렇게 말없이 맞이한 임종도 지키지 못했으니 봄이 왔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 것이리라.

이제 두 손 모아 영가의 극락왕생을 부처님 전에 발원한다.

'일체 집착을 여의시고 왕생극락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혼자되신 어머니께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머니도 저에 대한 가슴에 응어리진 모든 것을 풀어 버리시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생각하십시오. 자식들을 대신해 큰일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모이면 흩어집니다.

우리는 만날 때 헤어짐을 생각하고 모였을 때 흩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자식에 대한 미련도 부친에 대한 생각도 부처님 전에 훌훌 털어 맡겨두시고 부처님을 생각하시길 빕니다. 이제 저는 수많은 눈 푸른 수행자들이 공부하는 송광사에서 스님들을 보며 스스로 경책하며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 예불은 왜 드려야 하는가?

범경/치문



바깥에서 내부를 바라볼 때 사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다가 자기가 직접 어느 조직에 소속되었을 때 자기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때로는 당혹감과 두려움과 퇴행심을 내어 중도에서 그만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일례로써 출가하고자 산문에 발을 내디뎠다가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내 자신도 출가에 대하여 조금은 감상적인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행자시

절 원주시자 소임을 맡고 있을 때 되돌아가는 불자들과의 대화에서 공통된 점은, “출가를 호젓한 산사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참선하며 신도들과 이야기나 하면서 적당한 시간만 지나면 스님이 되어 대자유인으로서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가해서 겪는 현실이 자신의 이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그만 출가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본사에서 힘든 행자생활보다는 좀 더 편안한 말사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나의 경우 출가후 지금까지 숨가쁘게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어느 정도는 내가 밖에서 생각했던 출가와 일치하였으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소 수월한 면도 있었고, 또 다른 측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전혀 예상 밖으로 힘들어했던 것은 예불이었다. 굳이 불교신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절에 가면 예불 드린다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항일 텐데,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한

사람이 예불을 힘들어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것이다. 처음 며칠간은 그저 정신없이 예불에 임하여 스님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예불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예불은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예불의 필요성을 스스로에게 심어주고자 자위하였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예불함은 자성 중생심을 깨우쳐 불성과 같은 자성불로 만들고자 부처에게 예배함이니 삼라만상

에 가득차있는 것이 부처요, 불성인지라 꼭 불상 앞에서만 예를 올려야만 예불이 되는 것도 아니요, 성불하여 불상과 같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다면 한 동작 한 생각 모든 것이 예불이다. 다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그러나 전혀 예상 밖으로 힘들어했던 것은 예불이었다. 굳이 불교신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절에 가면 예불 드린다는 것은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항일텐데,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한 사람이 예불을 힘들어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것이다.

마음이 구심점을 찾을 수 있으며 예불함에 좋은 장소가 불당일 뿐이다. 따라서 예불이라 함은 부처님으로 상징되는 불상 앞에서 누구나 깨달으면 불상과 같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누구나 부처님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의식이며, 자신의 자성불인 능력에 육신인 소례가 부처와 같이 해탈하고자 예를 갖추는 행위이며, 부처에 접근하여 궁극에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동일화 작업이며, 불성에 적응하는 일련의 모방적 연습으로써 시방삼세간에 충만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자신도 하나가 되고자 함이 예불이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정신을 모으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었다.

이제 강원에 입방하고 보니 스님들께서도 모두들 예불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앞으로 강원에서 정진해 나가면서 예불을 통해 출가의 참의미를 찾아보리라 다짐해 본다.



#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다



도산/사집

‘인간정신의 발달단계 중 아동기는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인간에, 사회에의 헌신, 주체성확립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이시기에 경험하는 종교적 감정은 그 사람의 평생의 종교적 기틀을 형성한다’고 한다.

꾸밈없이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이들이 현실의 잘못된 모습에 물들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과 더불어 돕고 사는 참된 불자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불제자들의 의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국불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1600여년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한국불교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문화적 특성과 사상적 뿌리만을 간직한 채, 사회적 영향력과 역할, 책임에 있어서는 역사가 100여년에 불과한 기독교에 비하여 현저히 뒤져있다는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타종교에 비해 불교 인구의 격감추세가 두드러지며, 불교인의 노령화로 젊은 청소년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개신교, 천주교에 비해 2/5정도에 그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불교인의 저학력, 농촌 인구비율

에의 편중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계의 현실 여건 속에 정기적인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 포교원은 지난 95년 7월초에 장기간의 연구를 마치고 ‘21세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청사진’을 수립 발표하여 한국불교의 과거와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포교의 방향과 과제를 10부문 100여 과제로 정리하여 청소년, 대학생, 어린이, 유아등으로 5개년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중책사업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종단이 '역경', '도제양성' 과 더불어 '포교' 를 3대 사업이라 하면서도 장단기적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점에서 포교청사진을 세우고 5개년간 포교사업을 집중적으로 계획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종단의 지원뿐 아니라 사부대중 전체가 고정관념을 깨고 새 시대의 변화에 맞는 포교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포교의 중요성은 '국가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 는 말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국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들에게 부담만 더해주고 있다. 고학력 위주의 사회풍조는 입시 위주의 기형적 교육환경을 낳았고, 친구관계가 화합하는 우정이 아니라, 경쟁과 질시의 관계로 내몰려 있으며, 서양의 물질적 가치관에 따라 이기적이고 편협한 개인주의 생활태도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



고학력 위주의 사회풍조는 입시 위주의 기형적 교육환경을 낳았고, 친구관계가 화합하는 우정이 아니라, 경쟁과 질시의 관계로 내몰려 있으며, 서양의 물질적 가치관에 따라 이기적이고 편협한 개인주의와 생활태도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불교는 어떤 가르침으로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선조들은 삼국이 경쟁하던 시대에 '화랑' 이라는 청소년상을 정립하여 한반도를 통일하고 외세를 막아 저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케 하였다.

부처님의 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를 이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길은 불법에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하여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역사적 책임이자 시대적 과제라 여겨진다. 송광사어린이법회를 맡고 있는 요즘,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도록 이끌어 마침내 통일한국 시대를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인류를 구제하는 대승보살이 되도록 하겠다는 대서원을 세우며, 오늘도 아이들 앞에 선다.

# 송광사정혜사상량문

(松廣寺定慧社上樑文)

정혜사로 큰방을 옮기고, 본지의 제호를 정혜사로 바꾸면서 동당(법  
흥)스님께서 지으시어 정혜사 대들보에 들어간 상량문을 실는다. 아울러  
용어에 대한 주는 편집부에서 달았음을 밝힌다. —편집부—

부처님의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지혜광명(智慧光明)은 건  
곤(乾坤)<sup>1)</sup>에 충만(充滿)하고 보살(菩薩)에 무시무종(無始無  
終)<sup>2)</sup>한 자비(慈悲)는 법계(法界)에 창일(漲溢)<sup>3)</sup>하여 멀리 시  
공(時空)<sup>4)</sup>에 구애(拘碍)<sup>5)</sup>를 벗어났으며 생사(生死)의 유한상  
(有限相)을 떠났지만 어둡고 어리석은 증생(衆生)으로서는  
암야(暗夜)<sup>6)</sup>의 미로(迷路)를 탈출(脫出)하지 못하고 번뇌(煩  
惱)의 속박(束縛)을 형출(迺出)하지 못하였으니 애석(哀惜)하  
기 그지없는 현실(現實)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새 요사(寮  
舍)<sup>7)</sup>를 짓는다는 것은 정신(情神)의 수련(修鍊)과 인격(人格)  
을 수양(修養)할수 있는 전법도생(傳法度生)<sup>8)</sup> 선불장(選佛  
場)<sup>9)</sup>이 마련된다는 것이며 전미개오(轉迷開悟)<sup>10)</sup>의 신성(神  
聖)한 법전(法殿)이 건립(建立)된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본사(本寺)는 신라(新羅) 초창(初創)으로서 대상(臺上)<sup>11)</sup>에 수  
선사(修禪社)를 두고 대하(臺下) 정혜사(定慧社)를 두고 있  
다. 그 유현(幽玄)<sup>12)</sup> 신엄(神嚴)<sup>13)</sup>함이 국내(國內)의 백미(白  
眉)<sup>14)</sup>이며 산수(山水)가 가려(佳麗)<sup>15)</sup>하고 도량(道場)이 기절  
(奇絶)<sup>16)</sup>하여 선종사찰(禪宗寺刹)로서 십육국사(十六國師)를  
배출(輩出)하여 명성(名聲)이 천하(天下)에 관절(冠絶)<sup>17)</sup>하였

으나 경인년(庚寅年) 6.25 병화(兵火)<sup>18)</sup>로 인하여 사찰중심부분(寺刹中心部分)이 소실(燒失)된 것을 전주지(前住持) 현호 화상(和尚)이 팔차증창불사(八次重創佛事)를 완수(完遂)하였다. 일천구백일십구년(己酉) 초대방장(初代方丈) 구산(九山) 대선사(大禪師)의 원력(願力)<sup>19)</sup>으로 조계총림(曹溪叢林)이 발족(發足)된 이래(以來) 보조국사(普照國師)의 정혜결사(定慧結社)정신을 계승(繼承)하여 많은 납자(衲子)<sup>20)</sup>를 양성(養成)하여 왔으나 대중(大衆)이 다수(多數) 운집(雲集) 요사(寮舍)의 협소(狹小)함을 느끼던중 현주지(現住持) 현고 화상(和尚)이 치밀(緻密)한 계획(計劃)을 세우고 광대(廣大)한 원(願)을 발(發)하여 사자루(獅子樓)앞 터를 돋우고 새터를 마련하여 칠십오평의 정혜사(定慧社)를 지어 상량(上樑)을 갖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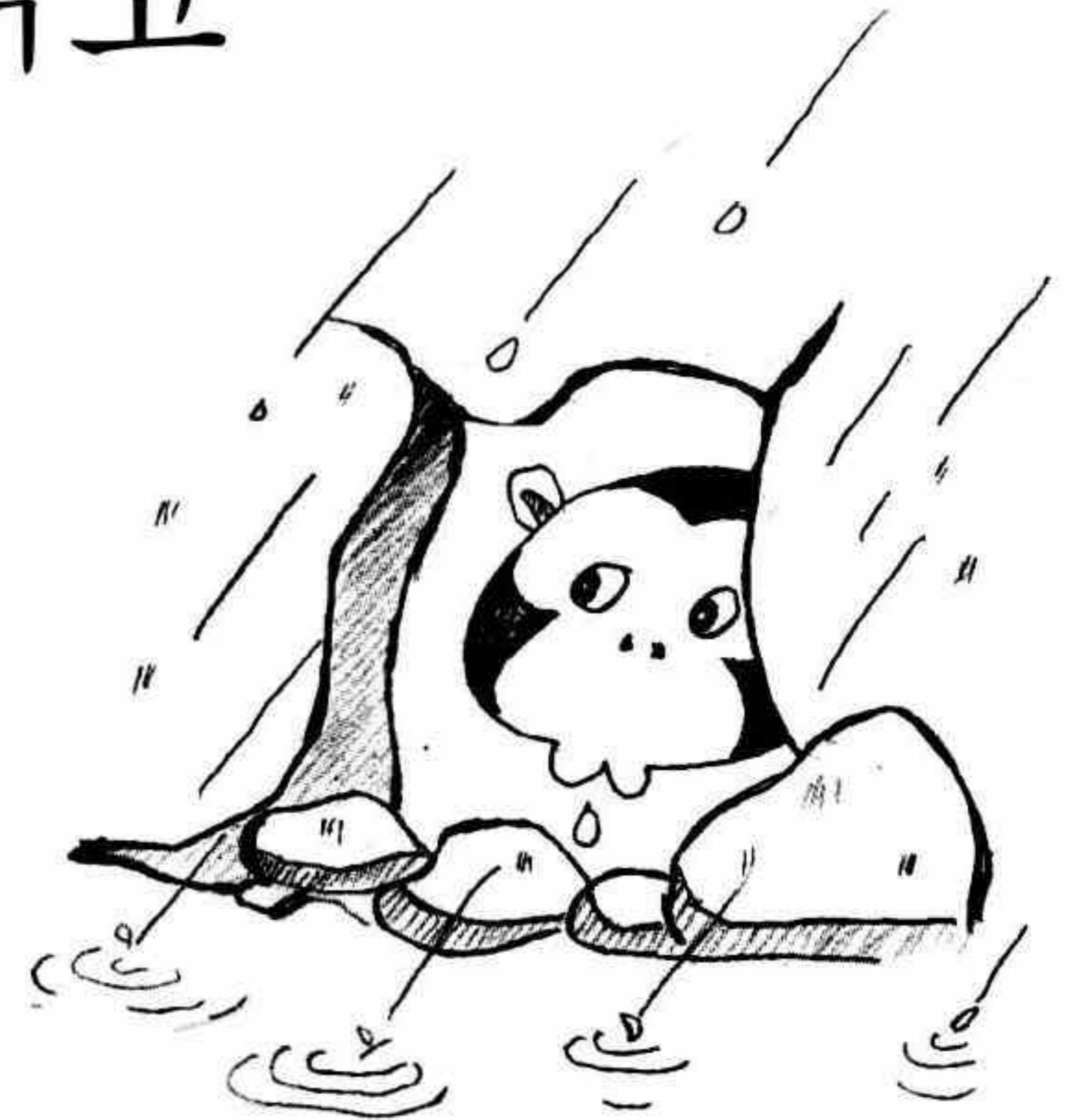
불기(佛紀) 이천오백사십년 병자(丙子) 시월 십구일 오시(午時) 상량(上樑), 조계산(曹溪山) 송광사(松廣寺) 도연(度然) 법흥(法興) 근선(謹選)<sup>21)</sup> 병서(竝書)<sup>22)</sup>

1) 건곤(乾坤) : 하늘과 땅  
 2) 무시무종(無始無終) : 시초도 종말도 없음.  
 3) 창일(漲溢) : 물이 넘침.  
 4) 시공(時空) : 시간과 공간.  
 5) 구애(拘碍) : 거리낌.  
 6) 암야(暗夜) : 어두운 방.  
 7) 요사: 스님들이 생활하는 장소(건물)  
 8) 전법도생(傳法度生) :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함.  
 9) 선불장(選佛場) : 좌선하는 곳. <부처를 뽑는 장소>  
 10) 전미개오(轉迷開悟) : 번뇌의 미혹을 해탈하여 열반의 깃대 마음에 이르는 일.  
 11) 대상(臺上) : 높은 대의 위.

12) 유현(幽玄) : 깊고 미묘함.  
 13) 신엄(神嚴) : 더욱더 엄함.  
 14) 백미(白眉) : 여러중에서 가장 뛰어난.  
 15) 가려(佳麗) : (산수나 자연, 풍치 따위가)아름다움.  
 16) 기절(奇絶) : 더할 데 없이 기이함.  
 17) 관절(冠絶) : 가장 뛰어난  
 18) 병화(兵火) : 전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화재.  
 19) 원력(願力) : 신불에 기원하여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기.  
 20) 납자(衲子) : 선승.  
 21) 근찬(謹撰) : 삼가 짓고.  
 22) 병서(竝書) : 아울러 쓰다.

# “자네 도가 뭔지 아나”를 읽고

무념/사집



지난 동안거때 치문 보는 틈 틈이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현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에서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효림스님께서 쓰신 것인데 내용도 좋지만 일단은 읽는 맛이 아주 그만입니다.

1부는 불교운동에 뛰어들기전 제방선원을 두루 다니면서 만났던 잊을 수 없는 도반들, 곧 이 땅에 소리없이 살고 있는 운수납자들의 아름다운 수행이야기입니다.

2부에서는 스님께서 불교운동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연들 이 땅의 불교현실과 수행자로서 자기성찰 불교운동의 어려움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스님들이 등장하는데 스님들의 수행이야기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먼저 이 책의 표지에 있는 효림스님의 시를 옮겨보겠습니다.

석장이나 하나 짚고서  
눈이사 먼 하늘에 담아  
수목 우겨져 새우는 곳이면  
내 어디든지 가리  
가다가다  
머리털은 희어지고 내 힘  
다하면  
어느 양지바른 두렁 밑이라  
도 앉아  
내 마지막 종을 울려야지

이 책에 등장하는 스님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수행자들의 정서를 관통하는 시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출가한지 겨우 3년이 됐습니다만 정말 도란 무엇일까, 또 어떤 사람이 도인일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옛스님들께서는 배고플 때 밥먹고 졸릴 때 잠자는게 도라 하시는데 수행이 부족한 저로서는 너무도 일상적이라 오히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도에 대해서 초월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아주 평범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를 닦는 수행이란 무엇인가! ‘자기 삶을 진실하게 가꾸



는 것이 아닌가, 세상을 속이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삶, 이것을 도라 하고, 무명(無名)으로 남기를 선택한 수행자들의 염원이라 했습니다.

구도자로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청정, 무욕, 서원, 용맹심, 자비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구도자는 살았을 때나 죽을 때도 늘 혼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혼자라는 고독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래서, 내면에서 육화(肉化)되지 않는 한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온갖 망상을 피우겠죠. 망상은 행동으로 나아가고 그 행동은 마침내 괴로움에 떨어질 테죠. 아직 중노릇의 참맛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출가한지 얼마 안되는 저에게도 수행자로서의 삶은 어렵고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스님들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세속적인 문제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당당하게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도반중에 천진도인 우화스님의 손상좌되

는 스님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도반스님에게 우화 노스님을 아는 대로 말해 달랬더니 슬프게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여법하게 올곧게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삶은 저 같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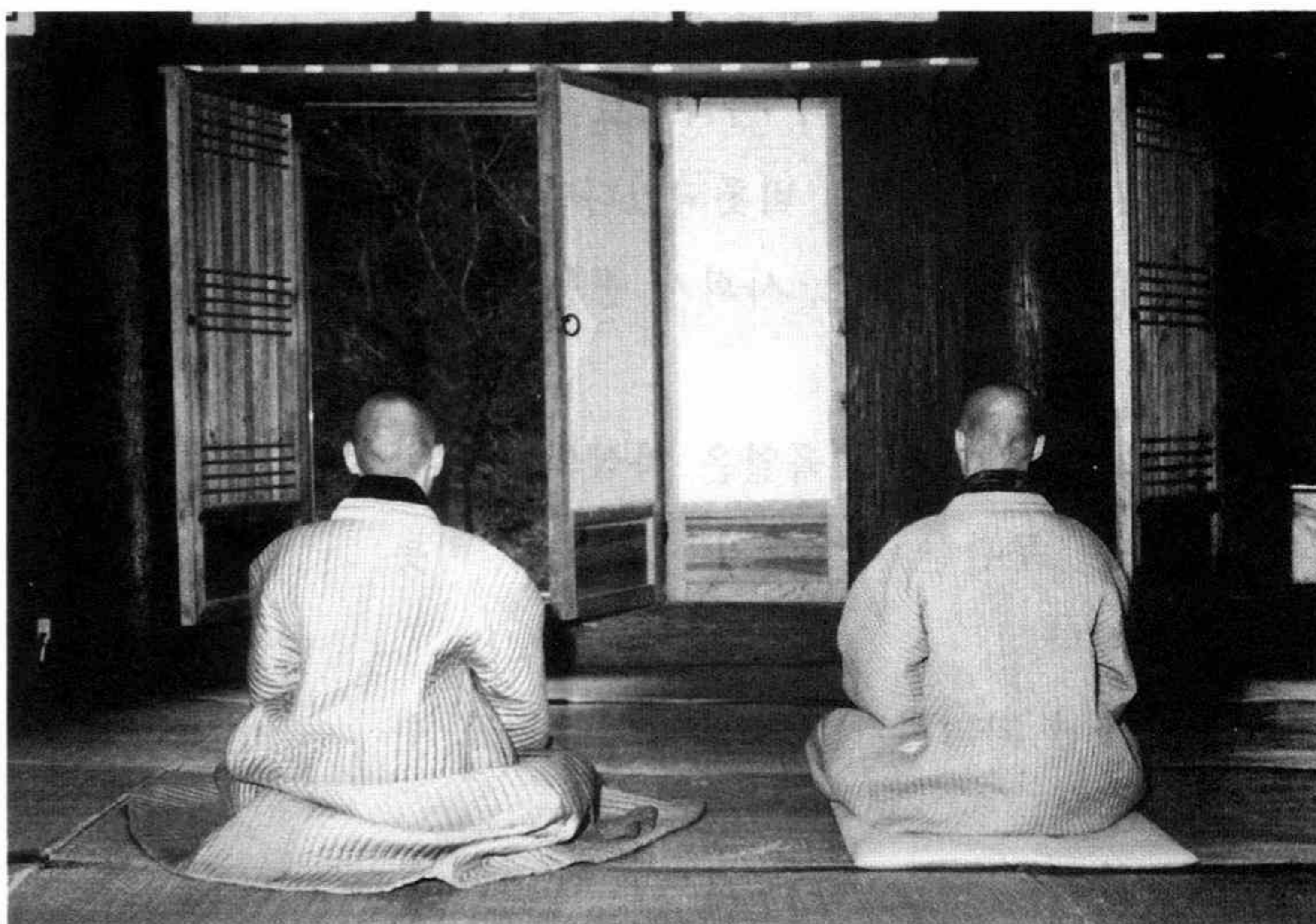
그리고,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이 땅의 불법을 펴고 지켜온 이는 다름 아닌 헛된 이름 팔지 않고 묵묵히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온 이같은 스님들 덕분인가 합니다.

2부에서는 어지러운 절 집안의 여러 문제들을 개혁하고픈 고뇌가 진하게 드러납니다.

절 집안의 살림살이가 먹고 입는데 풍족해지니까 모두들 거기에 매몰됐는지 갈수록 사치가 늘고있다고 걱정합니다.

사람이란 늘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합니다. 물질주의는 절집에서도 경계하고 경계해야할 문제입니다.

여하튼 저도 여법하고도 묵묵히 구도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가다가다 머리털은 희어지고 내 힘 다하면 어느 양지바른 두렁 밑에 앉아 내 마지막 종을 울릴 때까지...



# 일본불교의 어머니

지난호에 이어 보성의 대원사 주지스님께서 옥고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토신앙의 선구자이신 원신스님에 얽힌 일화입니다. 다시 한번 옥고를 주신 현장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부

현장스님 (대원사 주지)

## 1. 탈선의 동기, '경쟁과 비교'

서울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선도하면서 탈선의 동기를 추궁해 들어가 보니 최초 원인으로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한다.

그 두 가지란 “경쟁과 비교”였다. 우리 청소년들이 갖가지 사회범죄와 마약으로 빠져드는 원인이 경쟁과 비교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원인 제공자는 부모와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교육열은 자식의 행복이나 성장과는 무관한 부모들의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난 해 1년 과외비가 2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미국의 한 신문에서는 한국의 교육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에서 “한국은 자녀교육에 미친 광신자들이 사는 집단이지만 그 교육의 내용은 극히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양거리는 기사를 쓰고 있다.

자기 자식들을 좀 더 편안하고 화려하게 살게하고 싶은 부모들의 헛된 노력이 자녀들을 탈선과 범죄로 몰아가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비교와 경쟁심리는 인간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무서운 독소이다.

내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되면 우월감과 교만심이 커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좌절과 열등감에 빠지기 쉽다. 교만심과 열등감은 마음의 번뇌와 고통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스트레스 또한 경쟁과 비교하는 태도만 내려 놓아도 우리의 삶은 한

결 평안하고 여유로워 질 것이다.

우리들이 참으로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진리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는 일이며, 경쟁상대가 있다면 성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보고 업보의 힘에 끄달리고 게으름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경쟁상대로 삼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수행의 힘이란 언제 죽어도 좋은 삶이 아니라 어떤 일에 부딪혀도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말한다.

여기, 일본 정토종의 든든한 터전을 다지고 일본문화의 원천을 이룬 선지식이 있다. 그 분을 탄생시킨 어머니의 준엄한 꾸지람을 함께 들어본다.



## 2. 원신(源信)스님의 어머니

원신은 지금의 일본 나라현 태생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일곱살 때 불연(佛緣)이 맺어졌다. 그가 사는 시골 마을에 한 스님이 탁발을 나왔다.

집집마다 염불하며 양식을 얻어 바랑에 멘 스님은 한 불자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았다. 공양을 끝낸 스님이 자신의 발우를 개천의 흐르는 물에 씻고 있었다.

그 때 소년이 다가와서 보니 전날 내린 소낙비로 물이 불어나고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다.

소년이 스님께 말하였다. “스님, 그런 흙탕물에 씻어 보았자 밥그릇이 깨끗해 질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소년을 바라보니 귀엽고도 총명하여 다정한 말로 일러주었다.

“애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불교에는 불구부정(不垢不淨)이라고 해서 더럽고 깨끗한 것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란다. 그런 차별심은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지.”

스님의 말을 들은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되묻기를,

“그러면 스님께서는 더러운 것도 없는데 밥그릇은 왜 닦고 있어요?”

소년의 질문에 앞뒤가 캄캄해진 스님은 소년의 손을 잡고 모친을 찾아가서 불법(佛法)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아들을 출가시켜 주기를 권유했다.

마침 그 어머니도 아들을 때가 되면 출가 시키고자 하였으므로 탁발승에게 어린아들을 맡겼다.

소년은 이런 인연으로 천태종에 출가하여 원신이란 법명을 받고 불법을 익혔다.

15세가 되어서는 벌써 불도의 이치에 안목이 열리고 경전의 설법에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때 천황의 특사가 파견되어 법화경을 설법해 줄 법사를 요청하였다.

많은 승려중에 15세의 원신이 법사로 선발되었다.



우리들이 참으로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진리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는 일이며, 경쟁 상대가 있다면 성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보고 업보의 힘에 꼬달리고 게으름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경쟁 상대로 삼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수행의 힘이란 언제 죽어도 좋은 삶이 아니라 어떤 일에 부딪혀도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말한다.

대궐에 들어간 원신은 위의를 잃지 않고 많은 중신들과 천황앞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법화경의 깊은 내용을 설법하였다. 어린 사미승을 보고 실망하고 우려하던 사람들이 원신의 설법이 끝나자 모두가 감격하고 찬탄하였다.

특히 천황은 매우 감동하여 원신에게 승도(僧都)라는 지위를 내려주고 금은 보물과 7종의 가사를 선물로 하사하였다.

원신의 성공으로 온 산중이 떠들썩해지고 원신 자신도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이 기쁨과 영광을 고향에서 홀로 고생하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한시 바빠 전해 드려야지.” 하고는 자초지종을 편지에 써서 천황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함께 어머니에게 보냈다.

얼마나 기뻐해 주실까? 하고 어머니의 회답을 기다리는 원신에게 모친의 소식이 전해져 왔다.

어머니의 편지를 뜯어 본 원신은 헤아릴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말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어미는 네가 출가를 이루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후생의 일대사를 해결하는 길을 설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부처의 세계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 줄 것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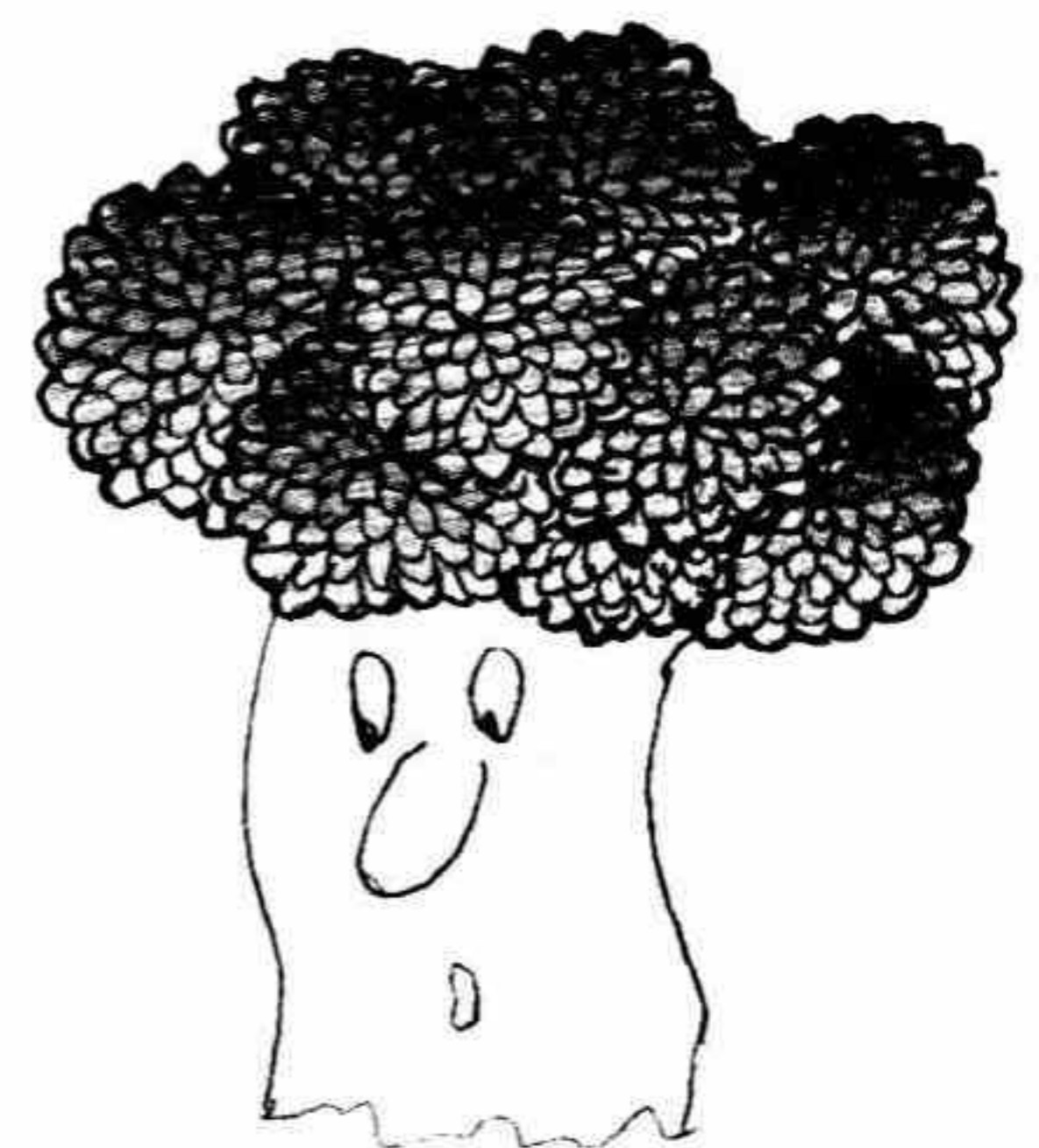
그런데 너는 불교의 학문을 이용하여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처세승으로 타락하는 것 같아 슬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천황의 칭찬보다도 대 우주의 부처님들로부터 칭찬받는 몸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너는 어찌면 그렇게 한심한 중이 되고 말았는가? 그런 것이 그대가 불교를 배우는 목적이었는가?” 하는 답신과 함께 천황의 포상품까지 모두 되돌려 보내왔다.

원신은 눈물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승도의 지위도 포상품도 모두 반납하고 오로지 모친의 뜻에 따라 후세를 건너는 다리가 되고자 생사 일대사의 해결 하나만을 지향해 수행에 밤 낮을 전념하게 되었다.

그 후 이십여 년, 마침내 사십 세를 넘어서 원신은 아미타불의 원력과 공덕으로 중생이

구원된다는 ‘왕생요집(往生要集)’을 펴내고 정토불교를 제창하였다.

일본정토종과 정토진종의 개산조인 법연(法然)과 친란(親鸞)이 원신의 영향아래 정토불교에 발심하였다면 원신의 어머니야말로 일본 정토불교를 탄생시킨 성스러운 어머니로 추앙받아 마땅할 것이다.



# 大乘起信論의 修行信心分에 나타난 五門의 바른 이해

종 지 / 대 교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본론
  - 1) 수행오문(修行五門)에 대하여
  - 2) 수행오문(修行五門)의 바른이해
    - 가. 보시문(布施門)
    - 나. 지계문(持戒門)
    - 다. 인욕문(忍辱門)
    - 라. 정진문(精進門)
    - 마. 지관문(止觀門)
3. 마치는 말

## 1. 들어가는 말

기신론(起信論)은 크게 인연분(因緣分), 입의분(立義分), 해석분(解釋分),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지수이익분(觀修利益分)등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의 인연분(因緣

分)에서는 이 논을 짓게 된 이유를 말하였고, 다음의 입의분(立義分)에서는 이 론(論)의 대의(大義)인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를 구체적으로 논술한 것이며 세 번째 수행심신분(修行心身分)에서는 사신(四信)과 더불어 그 실천방법인 오문(五門)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관수이익분(觀修利益分)에서는 이 논을 믿고 닦으면 큰 공덕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기신론(起信論)을 해동(海東)의 보살(菩薩)인 원효(元曉)스님께서도 보시고 대단한 감동을 받은 나머지 소(疏)와 별기(別記)를 지었다. 그 소(疏)에서는 ‘오로지 중생(衆生)으로 하여금 신심(信心)을 내게 하기 위하여 소(疏)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다.

불교(佛敎)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解脫)이다. 이러한 목표로 신심(信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효(元曉)스님의 말씀대로 신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신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신론(起信論)의 수행

신심분(修行信心分)에 나타난 오문수행(五門修行)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 2. 본론

### 1) 수행오문(修行五門)에 대하여

기신론(起信論)에서는 수행(修行)하는데에 다섯가지 방편문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수행신심분의 첫머리에 네가지 믿음(㉠ 근본을 믿는 것. ㉡ 부처에게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고 믿는 것. ㉢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는 것. ㉣ 사문이 바르게 수행하여 자리이타할 것을 믿는것)을 성취하는 실천방법이다.

다섯가지 방편문이란, 첫째 보시문(布施門)이고, 둘째 지계문(持戒門)이며, 셋째는 인욕문(忍辱門)이고, 넷째는 정진문(精進門)이고, 다섯째는 지관문(止觀門)이다. 이에 원효(元曉)스님께서는 소(疏)에서 '믿음은 있으나 수행(修行)이 없으면 곧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섯가지 방편을 닦아서 네가지 믿음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다섯가지 방편문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2) 수행오문(修行五門)의 바른이해

#### 가. 보시문(布施門)

보시(布施)를 번역하면 베푸다는 뜻이다. 보시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재보시(財布施)이고 둘째는 무외시(無畏施)이고 셋째는 법보

시(法布施)이다.

재보시(財布施)를 논에서는 '일체의 중생이 찾아와서 구하여 찾는 사람을 보거든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베풀어주고 자신의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무외시(無畏施)는 '액운을 당하여 공포심과 위태로움과 핍박을 받는 사람을 보거든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도와서 두려운 마음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보시(法布施)에는 '어떤 중생이 찾아와서 법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자기가 아는대로 방편을 설하되 명예나 이익과 공경을 탐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육바라밀(六波羅密) 가운데에 보시(布施)를 가장 으뜸으로 두는 것이다.

#### 나. 지계문(持戒門)

지계(持戒)에 대한 뜻을 논(論)에서는 '열가지의 죄(살생, 도적질, 음행, 이간하는말, 악구, 거짓말, 탐질, 기사, 침곡, 진에, 사견)를 범하지 말고 사된 견해와 아침을 멀리하고 항상 고요한 곳에 거처하면서 욕심을 작게하고 만족 할 줄 알며 두타행등을 행하라고 하셨으며 끝내 작은 죄라고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 부끄러워하고 이미 지은 악업은 고치고 후회하며 여래께서 만든 계율(戒律)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못중생들이 잘못된 허물과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계(戒)란 오계(五戒) 십계(十戒) 보살계(菩

薩戒)등의 여러 가지 계율(戒律)을 말한다.

오늘 같이 현대사회에 우리의 계율정신이 흐트러져 버린 시점에 계율의 참된 의미를 새겨 보아야 될 것이다.

#### 다. 인욕문(忍辱門)

인욕(忍辱)에 대한 자세를 논(論)에서는 ‘다 근 사람이 와서 괴롭히더라도 참고 보복할 마음을 내지 않으며 또한 이익과 손해 비난과 명예 칭찬과 꾸지람 괴로움과 즐거움등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하고 하였다. 서산(西山)스님은 선가(禪家)귀감(龜鑑)에서 ‘일념진심기(一念真心記)하면 백만장개(百萬障開)하고 약무인행(若無忍行)하면 만행불성(萬行佛性)’이라고 하셨다.

이 말은 ‘한 생각으로 진심을 일으키면 백만 가지 장애가 있고 만약 참는 행이 없으면 만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근대의 선 지식 구산(九山)스님도 ‘삼세여래(三世如來)나 역대조사(歷代祖師)도 다 인욕(忍辱)을 성취(成就)하여 부처도 되고 조사도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 라. 정진문(精進門)

정진(精進)을 논(論)에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굳세고 강하게 하여 용맹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밤낮으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성심으로 참회하고 권청하여 다른 사람의 착한점을 따라 기뻐하고 보리고 회향하여 항상 쉬거나 폐하지 않

으면 모든 장애를 면하고 선근이 더욱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에 끝없는 노력을 정진(精進)이라 말한다. 우리 중생(衆生)들은 전생(前生)에 지은 업(業)에 의해 살아간다. 이런 업(業)을 정진(精進)의 힘으로 조복 받아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보살도(菩薩道)를 원만하게 수행(修行)할 수 있다.

#### 마. 지관문(止觀門)

논(論)에서는 지(止)일체경계상(一切境界相)을 지라고 하며 이는 사마타관(奢摩他觀)을 수순(隨順)한 뜻이며, 선정(禪定)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인연생멸상(因緣生滅相)을 분별하는 것을 관(觀)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파사나관(觀)을 수순(隨順)한 뜻으로 지혜(智慧)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止)는 고요한 곳에서 단정히 앉아 뜻을 자르게 하되 일체 모든 상념을 생각생각마다 없애고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없애야 하며, 만약에 생각이 흩어지면 곧 거두어 와서 정념(正念)에 머물게 해야 오직 마음이 정념(正念)이요, 바깥경계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관(觀)이라 하는 것은止만을 오래 닦으면 곧 마음이 가라앉거나 게으르게 되니 이러므로 관(觀)을 닦는 것이다. 관(觀)을 닦는 것은 모든 세간의 유위(有爲)의 법(法)이 오래 머무름이 없이 무상(無上)함을 느끼고 알아서 마음으로 시방의 모든 일체를 분별을 떠나게 함으로써 모든 선한 공덕을 닦아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일체중생을 제도할 것을 서원(誓願)한 뒤 오직 지(止)에 전념하는 외에는 나머지 일체에서 행해다될 것과 향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관(止觀)은 쌍으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관계이다.

다시 론(論)에서는 행주좌와(行主坐臥)에 어느 때든지 지관(止觀)을 함께 행해야 된다고 한다. 지관(止觀)은 함께 같이 조성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 만약 지관(止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곧 보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수식관(數息觀), 사념처관(四念處觀), 또는 염불(念佛), 呪力, 참선(參禪) 등을 통해 선정(禪定)을 이루어서 밖으로 험떡이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쉬어서 지(止)를 이루고 그 때 관(觀)을 통해서 번뇌가 본래 공(空)하여 취하고 버릴것이 없음을 깨달아 근본을 비추는 관(觀)이 무르익게 된다.

따라서 일체(一切)의 경계가 동요하지 않게 됨으로 지관(止觀)이 성취되는 것이다.

### 3. 마치는 말

이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오문은 사신을 성취시키거나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문(五門)을 통한 바른 신심(信心)이 곧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인 것이다.

참된 수행(修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오로

지 부처님께서 성도(成道)하신 후 몸소행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 행(行)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기의 소견(小見)은 수행(修行)의 장애물이다. 그리고, 오문(五門)에 나타난 다섯 가지 방편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것임을 반듯이 알아야 한다.

믿음이 부족한 오늘날의 우리 중생들에게 기신론(起信論)에 나타난 오문수행(五門修行)이야말로 바로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될 것이며 그 결과 네가지의 바른 신(信)이 생겨 결국에는 자신의 해탈 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아타(自利利他)가 성취될 것이다. 화엄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도(道)의 근원이며 공덕(功德)의 어머니다’라고 했다.

#### 참고문헌

1. 大乘起信論(月雲, 佛泉)
2. 元曉의 大乘起信論 別記(은정희, 一地社)
3. 大乘起信論(愍山, 世界社)
4. 大乘起信論(杲山, 寶蓮閣)
5. 七波羅密(九山, 佛日出版社)
6. 佛敎學大辭典(弘法院)
7. 禪家龜鑑(西山, 弘法院)

# 勸修定慧結社文

海東曹溪山沙門. 知訥撰

보안 譯 / 사교

恭聞. 人因地而倒者. 因地而起. 難地求起. 無有是處也. 迷一心而起無邊煩惱者. 衆生也. 悟一心而起無邊妙用者諸佛也. 迷悟雖殊. 而要由一心. 則難心求佛者. 亦無有是處也.

知訥. 自妙年. 投身祖域. 遍參禪肆. 詳其佛祖垂慈爲物之門. 要我輩. 休息諸緣. 虛心冥契. 不外馳求. 如經所謂若人欲識佛境界. 當淨其意如虛空等之謂也.

凡見聞誦習者. 當起

제가 들으니 “땅으로 인해 넘어진 사람은 땅을 의지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땅을 벗어나서 일어나려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미혹하여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요. 마음을 깨쳐 한없는 신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자는 부처입니다. 미혹과 깨침이 비록 다르나 반드시 마음을 말미암는 것이니 마음을 버리고 부처를 구하는 것도 또한 바른 일이 아닙니다.

나 知訥이 어려서부터 조사의 영역에 몸을 던지고 선방에 두루 나아가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자비를 내리고 중생을 위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반드시 우리들로 하

여금 모든 인연을 쉬고 마음을 비워 그윽히 계합하여 밖으로 이리저리 구하려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경에 말씀하신 ‘만약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생각을 깨끗이 하여 허공과 같이 하라’고 하신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듣고 외워 익히는 사람은 마땅히 부처님

難遇之心. 自用智慧  
觀照. 如所說而修. 則  
可謂自修佛心自成佛  
道. 而親報佛恩矣. 然  
返觀俄輩. 朝暮所行  
之逆. 則憑依佛法. 裝  
飾我人. 區區於利養  
之途. 汨沒於風塵之  
際. 道德未修. 衣食斯  
費. 雖復出家. 何德之  
有.

噫夫欲出離三界. 而  
未有絕塵之行. 徒爲  
男子之身. 而無丈夫  
之志. 上乖弘道. 下闕  
利生. 中負四恩誠以  
爲恥. 知訥. 以是長  
歎. 其來久矣.

歲在壬寅正月. 赴上  
都普濟寺. 談禪法會.  
一日與同學十餘人.  
約日罷會後. 當捨名  
利. 隱遁山林. 結爲同

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마음을 내어 자기의 지혜로 관조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수행하면 스스로 부처님 마음을 닦으며 스스로 부처님 도를 이루어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아침 저녁으로 행동하는 자취를 돌이켜 살펴보면 불법을 핑계삼아 나와 남을 구별하여 이익의 길에서 헤매이고 풍진세상에서 머물러 도덕은 닦지 아니하고 옷과 음식만 이렇게 허비하니 비록 다시 출가하더라도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아! 삼계를 벗어나려하나 번뇌를 끊는 수행이 없으니 한낱 남자의 몸이 일 뿐 대장부의 뜻이 없습니다. 위로는 도를 넓힘이 어긋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익하게 함이 적고, 안으로는 네 가지 은혜(국왕, 스승, 부모, 벗)를 등졌으니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 지눌이 이런 까닭으로 탄식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임인년 정월에 상도(개경) 보제사에서 담선법회(고려시대선승들이 선에 관한 이치담론 및 선풍진작을 위한 집회)에 참여했다가 하루는 도반 십여인과 약속하기를 “법회를 끝낸 후에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함께 결사하여 항상 선정과 지혜를 조화롭게 닦는 것을 힘

社. 常以習定均慧爲務. 禮佛轉經. 以至於執勞運力. 各隨所任而徑營之. 隨緣養性. 於曠平生. 遠追達士眞人之高行. 則豈不決哉.

諸公聞語曰. 時當末法. 正道沈隱. 何能以定慧爲務. 不如動念彌陀. 修淨土之業也. 余曰. 時雖遷變. 心性不移. 見法道之與衰者. 是及三乘權學之見. 有智之人不應如是. 君我逢此最上乘法門. 見聞薰習. 豈非宿緣. 而不自慶. 返生絕分. 甘爲權學人. 則可謂辜負先祖. 作最後斷佛種人也.

쓰며 예불하고 경전을 독송하며 소임과 운력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를 하여 인연대로 성품을 기르고 평생을 구속 없이 자유로이 지내면서 달사와 진인의 높은 수행을 따르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라 하였습니다.

모두가 듣고 “시기가 말법이 되어 바른 도가 숨어 버렸으니 어찌 선정과 지혜에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아미티불을 불러 극락정토의 업을 닦음만 같지 못합니다.”라고 하니 내가 “시절이 비록 변화하나 마음의 성품은 옮기지 않으니 법도의 흥하고 쇠함을 보는 것은 바로 삼승(보살. 성문. 연각)의 방편의 견해니 지혜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대들과 나는 최상승 법문을 만나 보고 듣고 익히니 어찌 속세의 업연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기뻐하지 않고 반대로 본분을 멀리하고 방편을 배우는 사람을 달게 여기니 선조를 등지고 최후에 불종자를 끊는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 증시랑에게 보내는 답장(4)

홍근 譯 / 사집

細讀來書，乃知四威儀中，無時間斷，不爲公冗所奪，於急流中，常自猛省，殊不放逸，道心愈久愈堅固，甚愜鄙懷，然世間塵勞，如火熾然，何時是了。

正在鬧中，不得忘卻竹倚蒲團上事，平時留心靜勝處，正要鬧中用，若鬧中不得力，卻似不會在靜中做工夫一般，承有前緣駁雜，今受此報之歎，獨不敢聞命，若動此念，則障道矣。

보내신 편지는 자세히 읽었습니다. 일상생활중에 잠시도 끊이지 않고, 번거로운 공무에도 끄달리지 않고, 바쁜생활 속에서도 항상 스스로 치열이 성찰하고 특히, 방일하지 아니하여 도심이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견고함을 אני 저의 마음이 매우 흡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번뇌는 불타는 것처럼 치열하니 어느때나 마치겠습니까?

진정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대나무 평상과 좌복위에서 공부하던 때의 일을 잊지 마십시오. 평상시에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시끄러운 곳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시끄러운 곳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편지를 보니 전생의 인연이 잡다하여 지금 이런 과보를 받는다고 한탄하니 유독 그 말씀만은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도를 장애하는 것입니다.

古德云隨流認得性，無喜亦無憂，淨名云譬如高原陸地，不生蓮花，卑濕淤泥，乃生此花，老胡云真如不守自性，隨緣成就，一切事法，又云隨緣赴感靡不周，而常處此菩提座，豈欺人哉，若以靜處爲是，鬧處爲非，則是壞世間相，而求實相，離生滅，而求寂滅，好靜惡鬧時，正好著力，驀然鬧裡，撞翻靜時消息，其力能勝竹倚蒲團上，千萬億倍

但相聽，決不相誤，又承以老龐兩句爲行住坐臥之銘箴，善不可加，若正鬧時，生厭惡則乃是自擾其心耳，若動念

옛날 스님들께서는 ‘인연의 흐름을 따라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라고 하였고, 또 유마거사는 ‘높은 언덕에서는 연꽃이 피지않고 낮고 축축한 진흙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다’ 하였으며, 부처님은 ‘진여는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따라 모든 법을 성취한다’ 하시고, 또 ‘인연에 따라 감응하여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나 항상 보리좌에 거처한다’ 하시니 어찌 사람을 속이겠읍니까? 만약 고요한 곳을 옳다하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다고 한다면, 세간상을 없애고 실상을 구하는 것이며, 생멸을 떠나서 적멸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때가 진정 정진할 때입니다. 홀연히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한 때의 번뇌가 사라지고(消) 생사의 고통이 없어진(息) 경지를 뛰어넘게 되면, 그 힘은 대나무 평상과 좌복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천 만억배 뛰어날 것입니다.

제말을 들으십시오. 결코 당신을 잘못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편지에서는 방거사의 두 귀절로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일상생활의 좌우명을 삼는다고 하니 더할 수 없이 훌륭합니다. 만약 시끄러울 때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곧 스스로 그 마음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혹 망상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다만 방거사의 두 귀절(다만 모든 존재하는

時，只以老龐兩句提，  
 撕便是熱時， 一服清  
 涼散也， 公具決定信，  
 是大智慧人

久做靜中工夫，方敢說  
 遮般話，於佗人分上，  
 則不可，若向業識，茫  
 茫增上慢人前，如此說  
 乃是添佗惡業擔子，禪  
 門種種病痛，已具前  
 書，不識會仔細理會否

것을 실체로서 자성이 없다고 여길지언정 연기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참다운 실체로 여기지 말라)로 마음을 잡아 다스린다면 마치 열이 날 때에 청량산 한첩을 먹는거와 같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정적인 믿음을 모두 갖추었으니 대지혜인입니다.

오랫동안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지어왔기에 비로서 이와 같은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준이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식이 밝지 못한 증상만인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면 곧, 그에게 악업의 짐만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문(禪門)의 갖가지 방편은 이미 앞 편지에 서술하였는데 자세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북한동포를 위한 탁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전에 머리숙여 예배하오며, 오늘 저희 송광사 강원 학인들은 이웃과 하나되기를 염원합니다.

당신께서 사바세계가 모두 인연으로 어우러져 있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심은 이웃과 나라와 온 세계의 만물들이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이 이웃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를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식량난이 극심하다는 것 또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해 버릴 때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저희는 오늘 자비의 작은 날개짓을 펼칩니다.

그동안 산사에서 정진하던 저희들이 저자거리로 나섭니다.

당신의 인연법을 믿는 제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너와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명의 부처님이시여, 부디 오늘 한마음으로 모은 자비의 마음들이 보시하고 보시받는 이의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저희의 서툰 날개짓이 이 민족을 하나되게 하는 진정한 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아울러 하루 빨리 북한동포들이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전에 머리숙여 기원하옵니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 이 고불문은 송광사 강원에서 봄산철을 회향하며 실시한 '북한동포를 위한 자비의 탁발(5월6일)' 때 부처님께 올린 글입니다. -편집부-





## 송광사강원 발전기금 적립 상황

저희 송광사 강원에서는 강원 발전 기금을 꾸준히 모아왔습니다.

해청당 발간이후 해청당 편집실에 보내주신 후원금을 적립하여 왔고, 또 지난해에는 범망경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적립하여 왔습니다(성우스님께서 저희 강원을 위해 판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정혜사 지면을 통하여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으로 적립되는 기금현황을 강원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 아 래

- 해청당편집실 적립금액 ; 20,655,760원 (불기 2541년 5월 1일 현재)
- 범 망 경 판 매 금 ; 28,484,050원 (불기 2541년 5월 1일 현재)
- 총 액 : 49,139,810원

\*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의 심각성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기금은 강원 의 발전기금으로 쓰여져야 하겠지만, 어려운 동포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 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중 일천만원과 5월 6일 있을 탁발금을 합하여 '북한 동포돕기 성금' 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다음 여름호에 밝혀드리겠습니다.

## 편집후기

화사한 봄날, 강원의 보금자리를 '해청당'에서 '정혜사'로 옮겼다.

해청당이 맑고 투명한 느낌을 주는데 비해, 정혜사는 장엄한 결의가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제 강원의 소식을 전하는 강원지의 이름도 '해청당'에서 '정혜사'로 바꾸었다.

물론, 이제 겨우 낮익어진 '해청당'을 '정혜사'라는 낯선 이름으로 바꾸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송광사강원이 한국 불교의 등불이 되고 싶은 포부를 나타내 보고자 하는 이유가 크다. 하지만 '정혜사'의 편집은 '해청당'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인들의 생활을 주된 내용으로 삼다보면, 글 소재의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듯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송광사 강원 학인들의 때문지 않은 진솔한 초발심의 마음을 담아 내는데 최선을 다하여 변함없는 순수함을 이어가고자 한다.

강원지가 '해청당'에서 '정혜사'로 새롭게 출발하지만, '해청당'을 잇는 것이기에 '정혜사 첫호'를 '정혜사 13호'로 시작한다.

새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송광사강원의 모습을 변함없이 담아낼 '정혜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 '정혜사' 13호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

대경스님, 류인석, 심분남, 조순희, 황소연  
무심행, 지혜심, 손정남, 박혜영, 황부경  
진여화, 허명옥, 보광명, 박지성, 남성숙  
강기욱, 김정자, 한연숙, 이숙, 김공수, 조형대  
도서출판 보림

### ◀ '정혜사'에 장학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 진옥스님 — 70만원
- 현봉스님 — 35만원
- 화개면 지리산식당 — 50만원

##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강원 학인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정혜사'는 저희 강원 내에서 원고에서 편집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틈틈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 믿기에 우리는 이를 고집합니다.

정혜사를 발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경우 꼭 전화로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0205429-1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정혜사 편집실

우. 541-930 ☎ (0661) 755-5300, 5302

2541년 송광사강원

# 신입 및 편입 방부 안내

2541학년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방부받는 반	치문반 .....	○○ 명
	사집반 .....	편입 ○ 명
	사교반 .....	편입 ○ 명

※ 가을 방부 변동사항 예고

본 강원은 가을철부터 사미율의 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가을 신입방부는 사미율의 반으로 받게 되며, 예년과 달리 치문반의 경우 신입방부는 받지 않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방부안내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격	치문반 : 사미계 수지자
	사집반 : 치 문 수료자
	사교반 : 사 집 수료자

제 출 서 류	방부원서 .....	2부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승적사본 .....	1부
	승려증사본 .....	1부
	수료증(편입생) .....	1부
	사진 (3 × 4) .....	3매
	방부금 .....	20만원

준 비 물 : 대가사(비구) · 만의가사(사미) · 장삼 · 바루  
 전 형 방 법 : 서류, 면접  
 방 부 기 간 : 2541년 3월 10일 ~ 5월 13일 (양력)  
 문 의 처 : (0661) 755-5300, 755-5302

송 광 사 강 원



# 華嚴殿

시령위 엮인 경판(經板) 누가 언제 모셨는고  
 한 글자 한 획마다 심혈경주(心血傾注) 정성이라  
 차마코 따를 수 없어 합장(合掌)하고 마노라.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 華嚴展

큰절에서 계곡 건너편 법왕봉 기슭의 화엄전에는 경판을 모신 화엄전과 좌우에 불조전과  
 성산각이 있고, 동서에 명성각(明星閣)과 월조헌(月照軒)이 있다.